

2022 SSAEM CONFERENCE

결과
보고서



Teaching Across Borders

November 24 2022 | Conrad, Seoul

Contents

01 프롤로그

01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교육교류사업』이란? -----	06
02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교육교류사업』의중요성은? -----	07

02 행사개요

01 행사배경및목적 -----	10
02 행사안내 -----	11
03 세부일정 -----	12

03 행사내용

01 개회식 -----	14
02 기념사진촬영 -----	26
03 패널토론 -----	27
04 22년도 참가교사학생인터뷰영상상영 -----	46
05 축하공연 -----	47
06 22년도 우수 사례 발표 I-1 -----	48
07 22년도 우수 사례 발표 I-2 -----	65
08 후속교류 우수 사례 발표 II-1 -----	82
09 후속교류 우수 사례 발표 II-2 -----	97
10 기참가자대담 -----	112
11 폐회식 -----	130

APTE 10⁺

”

01

프롤로그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0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하, 교육교류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며, 교류협력국 교육부가 현지 협력주체가 되어 함께 하는 한국-아태지역 국가 양자 간 국제교사교류사업입니다. 2012년도 몽골과 필리핀, 두 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한 본 국제교사교류사업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아태지역 7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양국 교사가 각 교류국의 현지 학교에 3~5개월간 배치되어 직접 수업을 실시하고 교육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지 배치학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습니다. 7개 교류협력국에 파견되는 한국 교사들과 한국으로 초청되어 온 7개 교류협력국 교사들은 모두 각국에서 선별된 역량 있는 교사들로서, 파견된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교과, 자국어 및 문화간 이해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학교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지 학생들 및 동료교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지 활동과 교류는 파견·초청 교사 자신들은 물론, 배치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교육활동 경험의 공유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지교사와 협력하여 교류협력국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안을 개발하고, 낯선 환경에서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하는 경험을 통해, 참가교사들은 다문화교육 역량을 갖춘 글로벌 교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또한 교실을 넘어서 현지학교 동료교사 및 관리자들과 교육 경험과 교수법, 교실 및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교류를 함으로써, 배치된 국가, 그리고 소속 본국의 교육현장 활성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02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중요성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한국과 교류협력국의 교사·학생·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사업 참여국가 내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확대 되고 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한국교사들은 다문화교육 수요에 부응해 협력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교류협력국의 교사들은 국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연수를 받고 국내 협력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비단 사업에 참가하는 파견·초청교사 자신들에게만 국한되는 성과가 아닙니다. 배치된 학교의 동료교사는 파견·초청교사와 교육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며,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춘 파견 및 초청교사의 전공·문화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교육의 수혜자로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이해도 향상은 지역사회 의 다문화 인식 제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국과 교류협력국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한국형 교육협력 ODA 모델 발굴의 초석입니다. 하드웨어 지원에 초점을 둔 기존의 ODA 방식과 차별화하여, '우수교원'이라는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교육 ODA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의 협력체제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APTE 10⁺

”

02

행사개요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01 행사배경 및 목적

세계화와 다원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학습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다변하는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역량을 길러주는 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역량과 감수성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의해 발휘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교사들에게도 자기변혁적인 관점의 전환과 역량 강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습자들에게도 현장감 있는 경험적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은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사교류 사업을 구상, 2012년부터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구.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이하 “교육교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습니다. 2012년 몽골과 필리핀을 교류 대상국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2013년 인도네시아, 2014년 말레이시아, 2015년 베트남(2019년 사업 종료), 2016년 태국, 그리고 2017년 캄보디아, 2020년 라오스가 합류하면서 현재 한국과 아시아 7개국 간의 양자 간 교류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매년 한국과 교류 대상국의 교사들은 서로의 학교 현장에서 한 학기가량 직접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현장을 체험하면서 서로의 교육 비전과 실천적 세계시민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한편,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SSAEM(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콘퍼런스는 본 교육교류사업 참가 교사 및 학교의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종합성과보고회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 본 콘퍼런스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 참가자 및 관계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증대 및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 SSAEM 콘퍼런스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들의 사업 참가 이후 후속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10년간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약 1,200명의 국내·외 교사들의 다양한 후속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02 행사안내

행사명 | 2022 SSAEM 콘퍼런스

주 최 | 대한민국 교육부

주 관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일 시 | 2022. 11. 24. (목)

장 소 | 콘래드 서울 호텔 파크볼룸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행사)

주 요 | 약 150명

참가자 | - 교육교류사업 국내외 참가 교사

- 교육교류사업 국내외 학교 관계자

- 교육교류사업 대상 국가 교육부 관계자

- 교육교류사업 국내외 협력/관련 기관 관계자

- 교육교류사업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교 관계자 등

대상국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언 어 | 한국어-영어(동시통역 제공), 몽골어(동시통역 제공)

03 세부일정

시간	주요일정	
09:00~09:30	참가자 현장 등록	
09:30~10:00	개회식 - 개회 영상, 개회사, 환영사, 축사	
10:00~10:30	기념 단체 사진 촬영 및 휴식	
10:30~11:30	종합 세션	
	패널 토론 (8개국 교육부 대표)	
11:30~11:40	22년도 참가 교사·학생 인터뷰 영상 상영	
11:40~11:50	축하 공연 -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11:50~13:00	오찬	
13:00~14:25	22년도 우수 사례 발표 I -1	22년도 우수 사례 발표 I -2
	Rina A. Angeles (필리핀)	Jinnita Pongjakthanachot (태국)
	Namjildorj Khongorzul (몽골)	김태영 (한국)
	Gayatri Mayang (인도네시아)	Keomoukda Kattiyavong (라오스)
	Rotana Prum (캄보디아) x 시온고(한국)	Diana Alui Daniel (말레이시아) x 대전삼척중(한국)
14:25~14:45	휴식	
14:45~15:55	후속교류 우수 사례 발표 II -1	후속교류 우수 사례 발표 II -2
	Noemi S. Baysa (필리핀)	KEM Malyskrang (캄보디아)
	안봉선 (한국)	Frewendi (인도네시아)
	D. Urantogos (몽골)	김선경 (한국)
	Siwarin Sae-heng (태국)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말레이시아)
15:55~16:10	휴식	
16:10~17:25	APTE 10년을 돌아보며	
	- Retrospective 영상 상영 - 기참가자 대담 사업 참여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국내외 기참가자의 라이브토크	
17:25~18:00	폐회식 - 수료증 수여, 폐회사	

”

03

행사내용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01 개회식

일 시 2022. 11. 24. (목) 09:30~10:00

사 회 이승희 아나운서

언 어 영어 사회 (한국어, 몽골어 동시통역)

내 용

올해 SSAEM 콘퍼런스 개회식은 개회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박지영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협력관의 개회사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임현묵 원장의 환영사, 그리고 몽골 교육과학부 Ganbayar Ganbold 차관, 주한 필리핀 Theresa DIZON-DE VEGA 대사, 주한 캄보디아 EK Vongvathany 대사대리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구분	내용
개회영상	개회영상 상영
개회사	박지영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협력관
환영사	임현묵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축사1	Ganbayar Ganbold 몽골 교육과학부 차관
축사2	Theresa DIZON-DE VEGA 주한 필리핀 대사
축사3	EK Vongvathany 주한 캄보디아 대사대리

개회 영상



개회사

박지영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협력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국제협력관 박지영입니다.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10주년을 맞이해서 2022년도 SSAEM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멀리 7개 협력 국가에서 오신 분들, 일일이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몽골 교육과학부 간벌드 차관님, 필리핀 교육부 찬 차관님, 인도네시아 교육문화 연구 기술부 위디하르토 국장님,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렌 부국장님, 라오스 교육체육부 오세이 부국장님, 말레이시아 교육부 마이딘 부국장님, 태국 교육부 이엠상구안 부국장님을 비롯한 각국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존 드 베가 주한필리핀대사님과 에그 웅아타니 주한 캄보디아 대사대리님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임현묵 원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SSAEM 콘퍼런스의 주인공이신 8개국 선생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학기 중이라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내외 선생님 1,600여 명이 상대국가에 파견되거나 원격으로 교류하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교류했던 선생님들과 인연을 더 이어 나가고 자국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구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선생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교실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현장의 변화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마음가짐과 역량을 가지고 대응하느냐가 미래 교육의 질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을 통해서 바다 건너의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연결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야기한 이런 경험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 불평등, 분쟁 등 전 지구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글로벌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고류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구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계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는 아주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향후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교사고류사업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0년간의 값진 결실을 나누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나눔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임현묵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ERENCE



안녕하십니까? 2022 SSAEM 콘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교사교류 사업 APTC 10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박지영 국장님, 몽골 교육과학부 간바야르 간벌드 차관님, 필리핀 교육부 제라드 첸 차관님, 사업참여국 대표 여러분, 테레사 디존 드 베가 주한필리핀대사님과 에그 웅아타니 주한캄보디아 대사대리님을 비롯한 외교 사절 여러분. 사업 참여 8개국의 교사와 학생 여러분, 오늘 콘퍼런스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자 여러분, 오늘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함께 대처해야 할 도전 과제는 늘어나고 있고,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21세기 현실에서 미래 세대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계시민 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국적이나 민족,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계시민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참가자 여러분, 아태 지역 교사교류 사업은 코로나 19를 겪으며 지난 3년 동안 온라인 교류로 진행되었고 이런 온라인 교류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교사교류사업에 지속성과 확장성을 높여주었고 이는 사업참여 8개국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모두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면 회의가 더 반갑고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지난 10년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 아태 교사교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고 우수사례에서 유용한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신 사업 파트너 국가 대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1

Ganbayar Ganbold 몽골 교육과학부 차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임현묵 원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에 오신 대한민국과 파트너 국가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몽골 교육과학부를 대표해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 교육 포럼에서 발표한 인천선언문, 세계시민교육 APTE 일환으로 몽골 교사 172명과 한국 교사 148명이 APTE에 참여해 문학적 차이와 세계시민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분야에서 귀중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신기술과 과학 기술계에 발전하는 이 시대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량, 창의성, 또한 평생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교육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교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COVID-19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이 인류가 직면하는 도전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이행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난 2년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협의 및 토론 결과, 작년 11월 국제교육미래위원회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 보고서"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교사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생산적으로 협력하고,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전문 팀으로서 다른 전문가와 함께 가르치는 문제를 해결하고(열린 학습 환경), 교수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협력 작업과 공동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 등에 필요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사교류 프로그램은 정책과 활동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조직해 주신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몽골 교사뿐 만 아니라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의 관습, 역사, 교육, 문화의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업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에서 40,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참여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이 명예롭고 뜻 깊은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SSAEM 콘퍼런스에 참가하는 각국의 학교 관계자, 교사들이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2

Theresa DIZON-DE VEGA 주한 필리핀 대사



안녕하십니까? Mabuhay(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대사 디존 드 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관님, 임현목 APCEIU 원장님, 간바야르 간벌드 몽골 교육과학부 차관님, 제랄드 찬 필리핀교육부 차관님. 에그 왕아타니 주한캄보디아 대사대리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콘퍼런스 참석자 여러분.

주한필리핀대사관을 대표하여 이번 2022 SSAEM 콘퍼런스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최기관인 대한민국 교육부와 주관 기관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측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여러 교육부와 교육자들을 여러 국가에서 함께 모아주신 것은 교육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교육교류사업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또 한국 교육부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감수성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서 글로벌 시민의식을 재고하고, 또 더 큰 참여 교류, 베스트 프랙티스 경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교육 행정가들의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필리핀의 여러 교육자들이 한국과 또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 참가 교사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소중한 자리였고 이러한 자리가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실천방안을 촉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자리이고 교육이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어서 이런 일이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이러한 임팩트있고 의미 있는 교육의 중심에는 일상의 이름 없는 영웅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지역 사회에 내어주는 분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혁신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APTE와 한 필리핀 교사교류 프로그램 KPTEP(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와 같은 교사들의 협력은 그 플랫폼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글로벌 접근법, 다문화적인 접근법을 개발 하는데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부통령이자 교육부 장관인 사라 두테르테 (Sara Duterte)도 가족 중에도 여러 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신입 교사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 교육 인력을 새로운 기술과 재숙련하는 방법을 통해 교육역량을 높ی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교사교류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교사 교육의 우수성 (Excellence in Teacher Education)에 대한 법을 올해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교육 분야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교육부 차관님과 대표단께서 이번 콘퍼런스에 많은 통찰과 의견을 공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5년을 교사로 시작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교사 분들께 인내, 헌신, 열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lamat(감사합니다).

축사3

EK Vongvathany 주한 캄보디아 대사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끄 웡아타니입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대리 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박지영 국제협력관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임현묵 원장님, 몽골 교육과학부 간벌드 차관님, 필리핀 교육부 차관 제럴드 찬 님, APCEIU 관계자 여러분, 필리핀대사 디존 드 베가님.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2022년 SSAEM 콘퍼런스에 초청 받아 이 특별한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PCEIU)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벨슨 만델라의 이 명언은 인간의 삶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교육이 없다면 우리는 우주탐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교육은 누군가의 삶을 상상 이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번영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현대 사회와 수십 년 전의 사회를 비교해 보면, 그 변화는 교육의 힘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여 간의 코로나19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그 중 교육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해 실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태교육원이 2022 SSAEM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과 협력국가들이 각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다음날 협의회에서 후속 프로그램의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패널토론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다가올 새로운 10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자와 이해관계자가 이 프로그램이 교육 혁신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기회, 프로그램 향후 이행의 더 나은 품질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이 콘퍼런스를 마련해 주신 모든 주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번영, 고귀한 임무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시길, 2022년 남은 한 해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2 기념 사진 촬영



03 패널 토론

일 시 2022. 11. 24. (목) 10:30~11:30

언 어 영어, 몽골어, 한국어

좌 장 임원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실장

패 널

구분	이름	소속 및 직함
1	REN Ku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부국장
2	Rachmadi Widdiharto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 기술부 교육인력과 과장
3	Vong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사연수국 부국장
4	Dr. NOR FONIZA binti Maidin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부국장
5	Nomin Davaadorj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6	Gerard L. Chan	필리핀 교육부 차관
7	김진형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교육국제화담당관
8	Yupha lemsanguan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부국장

진행순서

내용	발표자	소요시간
오프닝	임원진 실장	1분
대한민국 교육부가 생각하는 22년도 교육교류사업의 성과와 의미, 22년도 사업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진 실장	30초
대한민국 교육부 답변	대한민국 교육부	2분
<p>질문 1.</p> <p>올해 교육교류사업은 온라인 교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진작, 학생들의 교육 손실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교육교류를 진행하며 당국과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올해 온라인 교류의 성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임원진 실장	30초
질문 1의 답변	대상국 전체	각 3분
<p>질문 2.</p> <p>2012년 처음 교육교류사업이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목표하였던 바가 무엇이었던지, 그리고 현재 교육교류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임원진 실장	30초
질문 2의 답변 (몽골, 필리핀)	대상국 패널 2인	각 3분
<p>질문 3.</p> <p>본 교사교류 사업이 교사전문성 개발, 교육국제화 등 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맥락 안에서 시행되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본 사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당국의 비전 혹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p>	임원진 실장	30초
질문 3의 답변	대상국 전체	각 3분
올해로 10년을 맞은 교육교류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며 설정한 목표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패널토론 마무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임원진 실장	30초
대한민국 교육부 답변	대한민국 교육부	3분
정리 및 클로징	임원진 실장	30초

패널 토론 내용

2022년도 교육 교류사업, 올해 사업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사업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

김진형,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국제 담당관실 과장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교육부 교육 국제화 담당관 김진형입니다. 우선 이렇게 협력국 교육부 대표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마주 보고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APTE 사업은, 2012년 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꾸준히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개 국가와의 협력으로 탄생한 이 사업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과의 협력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간 교류한 교사가 무려 1,600명 가까이 됩니다. 단순히 참여교사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교사 및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데 기여하고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작년에 도입한 온라인 교류방식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협력국 7개국 전체로 전면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원격교육 인프라, 언어 등을 주요 난관으로 예상했으나,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교사들의 열정이 올해 성공적인 온라인 교육교류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온라인 교류에 참여했던 과정에서 고생하시면서 난관을 헤쳐 나갔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교류 플랫폼 넷츠(NETS)의 개시 또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믿습니다. 국내외 교사 간 온라인 공동학급을 만들 수 있는 넷츠는, 앞으로 사업 내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국내외 교사 간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온라인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선생님들이 교류하며,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수업을 지속한 것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어려운 상황에도 APTE 사업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한 8개국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올해 교육·교류사업은 올해 교육교류사업은 온라인 교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진작, 학생들의 교육손실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교육교류를 진행하며 당국과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올해 온라인 교류의 성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N Ku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 체육부 부국장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캄보디아의 경우 우리 교육청소년 체육부에서는 이 3대 목표를 동등하게 중요시 여기고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가지 목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학습손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습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면대면 학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습손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서 학생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봉쇄기간 동안 국가 전체가 여전히 높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다음 다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인구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약 2년간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면대면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다시 실제 교실에서 학습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온라인 학습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에서는 많은 지역프로그램을 우리 교육 관계자들,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실 내에서도 학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온라인도 제공했습니다. 올해에 온라인 APTE와 관련해서 캄보디아에서는 18명의 교사를 선발하여서 4개의 한국학교와 교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교사 18명이 협업적인 온라인 교습을 한국 교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의 목표는 우리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 캄보디아와 한국의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막고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사들께서 큰 열의를 가지고 이번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achmadi Widdiharto,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부국장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특히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많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체계적인 교육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판카실라(Pancasila)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 또 학교 리더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전체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경사항, 개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중반에 교육 과정이 개선되었습니다. 2013년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난 후 진행되었던 개선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메르데카(Merdeka) 교육과정을 2022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광범위한 2년 학습 단계와 함께 높은 수준의 학습 결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지도와 학습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유능한 교사가 특정 교육과정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덜 숙련된 교사를 위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대면 수업을 2022년 7월에 재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포용적 교육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역량 증진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사와 교실을 넘어 글로벌 역량을 확산하기 위해 판카실라 학생 프로파일(Pancasila Students Profile)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국가재건을 위한 일종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는 신에 대한 믿음과 경건함, 글로벌 다양성, 상호 협력, 창의성, 비판적 추론 능력,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그루퍼그라칸(Guru Penggerak)이라는 프로그램도 교사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국가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교사가 학생들의 전체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교육 혁신의 활동가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프로그램이었고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학교들이 교육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학교들이 앞으로 교육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Vongdeuan OSAY, 라오스교육체육 부국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를 한국어로 해 봤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대표해서 그리고 교사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APTE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측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2020년에 시작했고, 따라서 프로그램을 대면 형태로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2년에 온라인 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습니다.

온라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세계시민교육(GCED)의 촉진, 교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 그리고 장기화된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손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경우, 이러한 주요 목표 외에도 이번 온라인 APTE를 수행하면서 자연에 대한 열정,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위한 기초 농업 기술의 구축 및 책임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분명한 성과 중 하나는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관리하는 텃밭 가꾸기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의 그런 학생들이 이런 스킬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자연을 사랑 마음을 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높이고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위한 기초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라오스, 두 나라의 문화이해가 증진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교류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TE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세계시민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다른 국가들과 관련된 공동 수업안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것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중요한 수업안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나 다양성 이슈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APTE를 통해서 교사역량증진도 강화하였습니다. 교사들이 원격 교육학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필요한 이러닝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졌습니다. 현재는 교사들의 ICT 역량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 현 상황에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IT 스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IT 스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APTE는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된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NOR FORNIZA binti Maidin, 말레이시아 교육부 부국장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후 활동 중 참여 교사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입니다. 기술 향상 및 국제적 노출이라는 기대 외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년 한국-말레이시아 교사 교환 프로그램(KOMTEP 2022)은 지속적인 팬데믹의 위협과 그로 인한 제한 사항 속에서 두 나라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참가 교사의 회복력과 인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이 사업이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올해에는 더 많은 교사들과 학교들이 이 온라인 APTE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교사 및 학교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난 만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의 신뢰와 관대함에 감사 드립니다.

16명의 교사들은 올해 KOMTEP에 참여하면서 이전에 참가했던 54명의 선배들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GCED)은 이 프로그램의 중심이며 이 프로그램 실행의 핵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중등학교에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통합시키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와 말레이시아에 세계시민교육 협력 센터(GCED Cooperative Centre in Malaysia)의 설립 제안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이니셔티브에서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지속가능한 학교 및 생태 학교와 같은 기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인 지리, 역사, 수학, 과학, 도덕 과목에 세계시민교육의 통합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및 교차 문화 경험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것이 꽃을 피워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온라인 KOMTEP는 교사들이 대면 교육과 온라인 수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업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사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 장벽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동안 교사들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과 대안적 수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min Davaadorj,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올해는 APTE 프로그램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은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약 30명의 교사 그리고 18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6개 온라인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사 소개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교사 학생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학교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21세기 세계시민의식 역량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류에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러닝 교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부에서 집중한 것은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몽골에는 많은 농촌 지역이 있고 기술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와 교육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특히 농촌 지역과 유목민 출신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은 열정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식이해를 도모하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하며 몽골에서 계속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가장 중요한 성과로서는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가, 물론 과거에도 조금씩 사용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프로그램과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APTE 온라인 프로그램은 시간, 공간,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다른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접근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학습의 기회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Gerard L. Chan, 필리핀 교육부 차관

필리핀 교육부는 APTE의 3대 목표(세계시민교육 확산, 교사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손실 완화)를 추진하고, 이를 교육교류활동을 통해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파트너 학교와 함께 모든 수업 계획을 실행하였고, 세계화,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성, 갈등과 평화 구축과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언어, 문화, 유산 및 문학 작품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소개하는데 있어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접목하였습니다. 모든 수업 과정에서 교사들은 협력적이고, 능동적이며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은 교육부가 지정한 수업 준비 자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제작한 세계시민교육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세계시민교육과 K-12 교육 과정 추진이 접목된 통합전략을 제시합니다. 해당 활동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과 연구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은 글로벌 역량을 진작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최상의 교육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해 평화와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와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는데 있어 해당 학습 영역을 이끌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권한도 부여 받았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는데 있어 해당 학습 영역을 이끌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권한도 부여 받았습니다.

연구회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 특히 소외된 사회의 저소득층 관련 이슈를 제시하는 교사들의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회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회의 연구 역량은 K-12 교육과정에 세계 시민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업 내용적 지식 그리고 교육학적 기술의 향상과는 별도로,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활용 능력이 향상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하였던 '횡단 기술(transversal skill)'을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그룹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언어 장벽을 없이 상대 국가와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upha lemsanguan,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부국장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올해 교사 교류 사업(Teacher Exchange Programme)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교육부와 APCEIU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마침내 다시 한 번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모든 학교는 5월 중순에 문을 열었지만 팬데믹이 심각한 지역의 일부 학교는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간 학생 절반은 학교 현장에서 대면으로 수업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공평하게 학생들은 학습 방식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많은 기관들은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완화하는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하기 위해 곳곳에서 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기관들은 명예 강사를 초청하여 학습 회복을 달성하고 학습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전략과 지도/학습 방식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 중퇴율이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은 우리의 국가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여, 사무총장은 한국-태국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국 학교는 70%는 국가 교육 과정을 사용해야 하고 30%는 자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 프로그램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지도 및 학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오늘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훌륭한 세계시민이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시민교육은 사회과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글로벌 문제를 가르칠 때 태국 교사들은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지도 방법 또한 바뀌었습니다. 교사들은 능동적 학습 개념을 교실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지도-학습 방법론, 과정, 기법을 한국 교사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능동적 학습 개념을 교실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지도-학습 방법론, 과정, 기법을 한국 교사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도 향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2

2012년 처음 교육교류사업이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목표하였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교육교류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Nomin Davaadorj,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교사교류프로그램의 지난 10년 동안 몽골이 참여해서 172명의 몽골 교사 그리고 또 148명의 한국 교사가 이 교사교류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교사들의 교습법도 다문화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향상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도 더욱 더 심화되며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몽골 교육과학부에서는 21개 주 9개 지역의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전역의 모든 교사들에게 기회를 드려, 최대한 이 교사들이 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국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 국가들이 이 기회를 삼아서 더 다양성을 전파하고 역사문화교육 그리고 전통의 다양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몽골에는 4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몽골 교사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참가자 발표를 기다리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몽골 교육과학부에서 교사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생산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방법론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법의 문제점을 팀 단위로 해결하게 되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협력과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사 교류프로그램은 정책이나 교육 활동의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그리고 또 유네스코의 APCEIU가 아주 성공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온라인교사교류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몽골교육과학부에서는 다시 한 번 지난 10년 동안 진행을 해주신 교사교류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래에도 계속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Gerard L. Chan, 필리핀 교육부 차관

교사 교류 프로그램은 참여 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크고 완전한 그림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 및 교육 교류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APTE 프로그램 이후, 교사들은 학교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우선순위 개선을 위한 Re-entry Application Project(REAP)라는, 세계시민교육관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부는 국제협력실(ICO)을 통해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Alumni Association(KPTEAA)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는 매해 열리는 GCED 포럼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질문 3

본 교사교류 사업이 교사전문성 개발, 교육국제화 등 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맥락 안에서 시행되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본 사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당국의 비전 혹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Yupha lemsanguan,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부국장

감사합니다. 태국은 APTE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태국 교육교류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고 목표한 바를 달성했습니다. 태국 학생들과 교사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서로 어떻게 교류를 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존재를 다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양국의 교사들은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활동, 교수법, 학습기법 등 학교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학생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태국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은 조금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교류프로그램을 저희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간 한,두 명의 교사들이 장기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사들을 초청하여 1년 동안 태국학교에서 숙박하고 식사를 제공받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하며, 1학기는 5월에서 9월까지, 2학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면 이 프로젝트의 성과가 되면 훨씬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양국 교사들 간의 유대 또한 더욱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글로벌 역량과 이해도를 더욱더 키워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erard L. Chan, 필리핀 교육부 차관

현재 필리핀 교육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협력하여 온라인 교사교류프로그램과 PLANET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많은 필리핀 교류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 수준으로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에게 물류, 멘토링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GCED를 더 넓은 규모로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미 Learning Series와 GCED Caravan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훌쩍리 수준과 학교장/시 공무원으로 높였습니다. UNESCO-APCEIU와 필리핀 교육부는 필리핀 교류 교사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력하여 더 많은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지지하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이 교육과 행정과정에도 유용하다는 의식을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GCED 101 과정은 인식 수준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Nomin Davaadorj,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몽골 교육부에서는 교사의 역량과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결의에 따라 개별적인 교육기관인 교육총괄과(General Department of Education)를 설립했습니다. 교육총괄과는 도 및 광역교육과와 교육기관에 전문성, 방법론, 관리 및 조직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와 요건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교는 교육총괄과 협력하여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교사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NOR FORNIZA binti Maidin, 말레이시아 교육부 부국장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KOMTEP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프로그램 수료생 70명 모두의 직업과 전문성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속한 교육 공동체 안팎에서 혁신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활동은 동료 교사, 학교 및 지역사회와 공유되어 STEM, 세계시민교육, 특수교육, 실습 공동체 및 국제 협력과 같은 분야에서 탐구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7과 효과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KOMTEP의 구현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KOMTEP은 교사 전문성 부서(Teacher Professionalism Division)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CPD(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의 교사 전문성 개발 마스터 플랜(Teaching Professionalism Development Master Plan, PIPPK)과 일치합니다. 마스터 플랜을 통해 교사는 국제적인 노출 및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탐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협력을 통한 교사의 역량 향상에 관한 UN SDG 4c와 일치하는 맥락입니다. 지역적 측면에서 교육부는 또한 APTE 프로그램 콘텐츠가 동남아시아 교육부장관기구(SEAMEO)의 두 번째 우선순위인 포용에 대한 장벽 해소와 세 번째 우선순위인 긴급상황에 직면한 탄력성, 다섯 번째 우선순위인 교사교육 활성화, 그리고 일곱 번째 우선순위인 21세기 교육과정 채택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프로그램은 다방면에서 말레이시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콤텡(KOMTEP)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이전 방식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면모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방식의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말레이시아와 한국에 교육 기관들의 상황이 가능하다면 대면교육으로 방향을 전화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국적의 교사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교사들을 초빙해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APTE 국가들에 도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메커니즘을 찾아서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또 말레이시아 학교에 와서 교사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 교육부장관기구 회원국 교사들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주관해 주고 계시는데 APTE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외국어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 수업을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었는데, 2016년에는 한국어 수업 모듈을 더 많이 포함을 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 교사가 해당 말레이시아학교에 왔을 때 더 많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ong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부국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으면서 유례없는 교육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제도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급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면 수업이 불가능했기때 원격교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교육, 정부, 당국, 교육자, 학습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개인의 지도법과 학습에 ICT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또한 업무와 생활적 측면에서 뉴노멀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적응하였습니다. 또한 줌, 구글미팅,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도법 및 학습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회복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가 지도 및 학습을 위한 공통의 언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지도 방법을 관찰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도움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하는 포용적인 교육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APTE) 프로그램은 라오스의 교육 회복을 위한 혁신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achmadi Widdiharto,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부국장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 APTE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교육과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글로벌한 이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존중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PTE 프로그램은 성평등, 인권, 지속가능발전, 평화 및 비폭력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실을 만들고, 문화 간 대화 및 파트너십을 촉진하며, 글로벌 학습/지도 경험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관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했고 결론적으로 국가철학인 판카실라(Pancasila)를 교과과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교육의 틀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판카실라 학생 프로파일(Pancasila Students Profile)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여기에는 5개 핵심가치가 있습니다. 종교, 민족, 독립, 상호 협력 그리고 또 정직. 이 5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윤리교육을 강화해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 협력기관과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 등이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중순에 시작했고 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팔, 불가리아,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판적, 비교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적용하는 데 있어 글로벌 교사의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자기 인식,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길러 주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세칼람 푸라(Sekolah Penggerak)를 추진해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 도시들과 함께 MOU를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는 우리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REN Ku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부국장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는 APTE가 캄보디아 교사의 능력 향상, 문화 간 협력, 학습 및 우호를 위한 새로운 창구를 만들고, 캄보디아 국민의 마음에 사랑과 이해를 심어주는 한편, 교직원의 경험을 다양화하는 맥락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면서 특히 교사들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들이 수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행동 연구, 세계시민의식, 비판적 사고와 같은 다른 기량도 키워야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전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0년을 맞은 교육교류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 본 사업을 시작하며 설정한 목표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 같은 점과 다른점, 그리고 패널토론 마무리 발언

김진형, 교육부 교육국제화 담당관 과장

각국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코로나 이후의 학습결손, 그리고 격차에 대한 고민이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인 고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욱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이나 교사교육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APTE 사업이 작은 단초가 됐다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 사업 10주년을 돌아보면 참 기나긴 여정이 잘 마무리됐다는 기쁨,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더더욱 부각 됐지만, 미래를 이끌 우리 학생들이 지구촌 모두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더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교육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협력하여 선생님들이 문화 간 이해 수업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 수업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겪으며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 도입한 온라인교육의 경험들을 내년 이후에 어떻게 도입할지,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대상국과 논의하여 일부 국가 대상으로 대면 초청.파견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류 트랙을 새로이 만들려 합니다. 이 트랙을 통해, 여러 이유로 외국으로 물리적으로 가기 어려운 교사들에게 국제교육 교류를 시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해서, 참여 교사들이 우선 수업과 활동 사례가 축적되고, 점차 이 사업의 온,오프라인 두 트랙 교류방식이 코로나 이후에 국제교류 선도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분쟁, 기후 변화, 팬데믹과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교육교류를 실현하려는 협력 대상국 모두의 노력은 그 의미가 뜻깊다고 믿습니다. 그간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이런 고민들을 되돌아보고 또 이정표로 삼을 그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사진



패널 토론 현장 사진



패널 토론 현장 사진



좌장 임원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실장



Gerard L. Chan 필리핀 교육부 차관



김진형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교육국제화담당관



REN Ku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부국장



Rachmadi Widdiharto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 기술부 교육인력과 과장



Vong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사연수국 부국장



Dr. NOR FONIZA binti Maidin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부국장



Nomin Davaadorj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Yupha lemsanguan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부국장

04 22년도 참가 교사 학생 인터뷰 영상 상영



05 축하 공연 -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06 22년도 우수 사례 발표 I -1

일 시 | 2022. 11. 24. (목) 13:00~14:25

사 회 | 이승희 아나운서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I

번호	이름	소속	발표 제목
1	Rina A. Angeles	필리핀 San Juan City Academic Senior High School	APTE: 전할 이야기, 나눌 교훈, 계속 되어야 할 실천
2	Namjildorj Khongorzul	몽골 Naran Secondary School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
3	Gayatri Mayang	인도네시아 SMAN 1 Rogojampi Taruna Budaya Banyuwangi	다양성 이해를 통한 지구 이야기
4	Rotana Prum x 시은교	캄보디아 Hun Sen Angsnoul High School	캄보디아-한국 세계시민교육 교류 프로젝트

1. APTE : 전할 이야기, 나눌 교훈, 계속되어야 할 실천

Rina A. Angeles, 필리핀 San Juan City Academic Senior High School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Rina A. Angeles이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왔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기회를 빌려서 지금 줌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저희 산 후안 시(San Juan City)교육 당국과 저희 고등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한 연사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처음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 멍하니 혼자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학교 생활을 돌이켜 보면, 아마도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때가 제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처음 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산 후안 시 아카데미 시니어 고교(San Juan City Academic Senior High School)의 직접적인 경험, 우리의 이야기, 공유할 교훈,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실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필리핀-SDO 산 후안 시에서 가장 작은 학군에 속해 있습니다. 산 후안 시(San Juan City)에는 공립학교가 9곳, 국립고교가 1곳, 그리고 최근 독립학교가 된 고등학교가 2곳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 5명 중 1명만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우리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사 5명 중 1명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9년 전인 2013년에, 사진에 이렇게 나와있듯이, 저는 한국-필리핀 교사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배정됐던 학교가 경기도의 초등학교였고, 제가 유일한 필리핀 교사로서 언어와 문화에 중점을 두는 수업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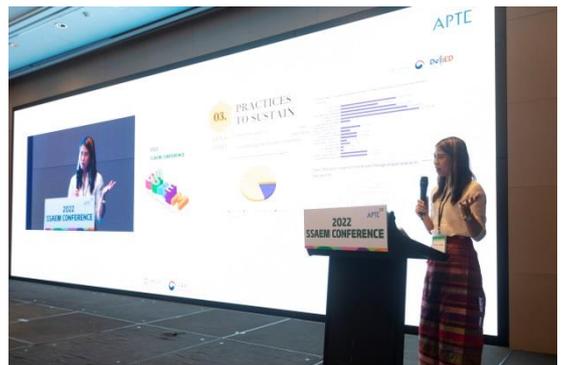
또한 2022년에는 제가 또 다른 기회로 개별 학습지도에서부터 팀 학습지도까지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업 목표였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교사 팀은 다양한 전문 분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회계, 비즈니스 및 관리(ABM)를 전공했고, 다른 두 분은 사회과학을, 그리고 나머지는 언어 및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런 교사들과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해서 저희는 SDG 10: 불평등 감소, SDG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SDG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토론의 세 가지 주요 초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16~20세입니다. 선생님은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셨습니다. 또 STEM 전공 학생들과 일반교양 전공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회계경영전공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SDGs 중에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협력적인 토론을 위해 저희는 미술을 활용하여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SNS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로 수업이 끝날 때마다 틱톡 영상을 만들어 SNS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만다라 평화 미술(Mandala Peace Art) 활동,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프로젝트 시놉에서 재 활용 가방 페인팅, 세 번째 수업에서는 춤을 통한 불평등 해소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었던 프로젝트 시놉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즐기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활동에 접목하라고 했습니다. 재활용 가방에 페인팅을 해서 교류 대상 국가의 학교들에 나눠줬습니다.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인 호세 리잘(Jose Rizal) 박사님은 "젊은이는 국가의 희망(Ang Kabataan ang Pag-Asang ating Bayan)"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학생들을 고려합니다. 저희가 얻은 교훈을 공유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만 배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 A도 이런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전체 학생 60명이 세계시민교육 서포터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등의 실천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축하하고, 학습을 축하하고, 소소한 성공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성공담을 공유했고, 그 결과물과 재능을 전시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의 현장에도 서명을 하며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더 확산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우리가 시작한 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협업과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결해야 할 최우선 순위와 강화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로부터 신속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어하는 상위 세 가지 SDG는 SDG 5 - 성평등, SDG 4- 양질의 교육, SDG 1 & 3 - 빈곤 퇴치, 건강과 웰빙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정과 학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류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을 때 '우수하다, 정말 놀랍다' 등의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작한 것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배우는 역동적인 세계시민교육 옹호자(GCED Advocates)로서 실천하는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혁신을 계속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시킬 방법을 찾아봅시다. 변화의 주체이자 세계시민교육의 옹호자가 됩시다. 그 누구도 지식을 독점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유하고, 교육 시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

Namjildorj Khongorzul, 몽골 Naran Secondary School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Khongorzul Namjildorj라고 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 모든 교사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행복과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대표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오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몽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칭기즈칸 탄생 860주년이자 'Mongolian Pride Day(몽골 국가 자긍심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날 APTE 10주년도 축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2018년에 교사교류프로그램을 통해 남양 초등학교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 당시 멘토 선생님의 도움 아래서 학교 교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2022년 온라인 교사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현황,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경험,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Sukhbaatar Naran 지방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1955년도에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동남쪽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방에 있는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명의 교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고, 278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학교 학생의 60% 정도가 유목민 가정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유목민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온라인 수업에 적응해 나가야 될 지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자신감 있고 또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저희 학교의 교훈입니다.

저희는 2022년 온라인 교사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사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도 소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Naran Secondary School의 초등반 교사 L.Chinzorig, 영어교사 Gerelchimeg, 초등반 교사 Nasanbat, 그리고 역사·사회 교사 E.Oyuntungalag 교사들이 이번 APTE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주상초등학교가 저희와 협력을 해서 이번 APTE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였고, 김세연 선생님, 이서현 선생님, 신은희 선생님, 민태임 선생님과 이원경 선생님께서 저희와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협력해 주셨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그 덕에 저희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APTE 사업에 참여하였고,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기 자신들을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이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Naran Secondary School 같은 경우에는 Chinzorig 담임교사의 4a반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Chinzorig 선생님이 맡은 반은 2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큰 특징이 80% 정도가 유목민 가정의 아이들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학년부터 2.5년 간 교실 수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집이 유목민 생활로 인해서 적게는 5킬로, 멀게는 64킬로까지 떨어져 있는 먼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온라인 수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도 조성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사회성이 떨어지고 학습 부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3개월 동안 저희 몽골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학습 참여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와 한국 주상초등학교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축산업·농업도 학교 차원에서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유사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 APTE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협력 사업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6번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수업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주상초등학교와 같이 한 첫 번째 수업은 김세연 선생님이 해주셨던 한국 전통문화 수업이었습니다. 김세연 선생님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혼합해서 매우 재미있게 가르치셨습니다. 한국 학생들과는 교실 수업을 하였고, 몽골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수업 형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몽골 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혼합 교육을 현업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 선생님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aran Secondary School의 경우에는 Gerelchimeg 선생님과 Nasanbat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들'이라는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한국 학생들에게 몽골 동요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몽골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었고, 통역 선생님이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는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또 통역 덕에 학생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학습법을 수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업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재확인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거꾸로 학습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매우 높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의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을 저희가 단축할 수도 있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도 많이 증가하였고, 교사와 학생들 간에 편리한 의사소통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상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했습니다. 한국 교사들로부터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Chinzorig 선생님과 Nasanba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악보를 보면서 한국 학생들이 몽골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몽골 선생님들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다음 수업을 더 재미있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상초등학교 신은희 선생님도 한국의 봉제 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신은희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며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원경 선생님, 이서현 선생님, 민태임 선생님도 한국과 몽골의 기후 차이 등을 다루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인상을 남긴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반 안에서 전시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몽골 Chinzorig 선생님과 Oyuntungalag 선생님은 몽골 책꽂이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진행했다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겠습니다.

또 양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서로 조그만 기념 소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물건을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상을 입고, 음식도 맛보고, 전통 놀이를 할 때, 학생들의 눈빛이 굉장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을 통해서 문화 전시회 코너도 만들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향후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도 적용 범위 확대라든가 양국 문화의 존중, 또 서로 간의 소통에 큰 도움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온라인 장비를 저희 학교에서 구축할 수 있었고,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평화롭고 편리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도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생겼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는 것이 좋은 결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교사들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식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또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주상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학교, 더 나아가서 국제 여러 나라의 학교와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온라인 수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굉장히 넓은 영토에서 몽골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한명 한명을 찾아가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다양성 이해를 통한 지구 이야기

Gayatri Mayang, 인도네시아 SMAN 1 Rogojampi Taruna Budaya Banyuwangi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SSAEM 콘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대한민국의 교육부,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그리고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추진하는 모든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2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sia-Pacific Teacher Exchange, APTE) 온라인 우수사례의 인도네시아 대표이자 SMAN 1 Rogojampi Taruna Budaya Banyuwangi의 영어 교사인 Gayatri Mayang Handayani입니다. 저는 APTE 프로그램과 함께 한 지난 3개월 간의 여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다양성 이해를 통해 지구를 구하는 것(Saving the Earth through Understanding the Diversity)"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과 수백 개의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영토가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참가자 중 한 명이자 교사로서, 저는 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교류학교, 인도네시아-한국 교사교류프로그램의 사전 준비, 지도 과정 및 학생 프로젝트, 그리고 2022 인도네시아-한국 교사교류프로그램의 시사점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주 고등학교와 제가 몸담고 있는 SMAN 1 Rogojampi Taruna Budaya Banyuwang 고등학교가 교류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수주 고등학교에서 24명의 학생과 5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저희 학교에서는 58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제가 저희 팀에 Taruna Budaya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Taruna는 남자/여자를 의미하고 Budaya는 문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대표자'라는 뜻으로 연구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대표 교사였고, 예술 및 문화 교사인 Iluh Lukanis 선생님은 다수의 전통 춤을 창작하는 전문가입니다. 영어 선생님인 Supriyadi 씨는 자바문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ndri Fradias씨는 예술 및 문화교사이자 현대무용의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사전 준비 기간 동안 적어도 세 가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직원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두 학교 간의 조직 회의 및 줌 회의는 8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성원들과 서로 알아가고, 학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최고의 파트너, 석지연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수주 고등학교 석지연 선생님은 저와 언제든 만나 인도네시아-한국 교사교류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두 학교는 교류 교사 수업 3회와 학생 프로젝트 모임 3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생님이 진행하는 첫 수업은 제가 맡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은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식 종교 6개와 각각의 종교가 축일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 학생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캠페인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Iluh 선생님과 Hendri 선생님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선생님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바니우왕기(Banyuwangi) 전통춤의 역사와 기본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발, 손, 몸동작을 배웠고, 학생들이 멋지게 전통춤의 기본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Supri 선생님이 진행했습니다. 자바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 민족입니다. 자바인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별한 문자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자바어 문자는 인도네시아 문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바 문자를 배우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주요 활동, 바로 학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동영상과 매거진이라는 두 가지 결과물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온라인에서 실시하기로 3회의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한 문화 간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 based on School Life)' 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홍수진 선생님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학생들이 매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일과를 우리와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협력과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 프로젝트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첫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주제 4개는 방과후 활동, 학교 축제, 휴식 시간,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발표할 영상을 제작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두 번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 계정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그룹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코멘트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학생들이 줌 회의에 모여 전체 그룹의 전체 영상을 시청하고 토론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마친 후, 학생들은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잡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상대 국가의 학교 문화를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활동' 주제를 맡은 인도네시아 모둠 학생들은 한국의 방과후 활동 모듬이 만든 영상을 바탕으로 매거진을 만들고, 한국의 방과후 활동 모듬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방과후 활동 모듬의 영상으로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 학생들은 패들렛을 사용하여 다른 그룹의 작업에 대해 의견을 적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매거진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3개월 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간직했고,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학생들 역시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간 감수성이 높아지고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와 낯선 행동을 더 잘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학생들은 마음을 열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 공동체에 속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림으로써, 학생들은 미래의 해외 생활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국 문화의 선구자 또는 자국 문화를 알리는 대사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있어 이 프로그램은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의 팀워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협력하는 방식을 배우고 현재의 학습지도법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학습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도 있었고 많은 지식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끝으로 두 학교 간의 교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유대감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인도 총리인 네루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문화는 마음과 정신을 넓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화를 이해할수록,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고 관용과 정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캄보디아-한국 세계시민교육 교류 프로젝트

Rotana Prum x 시온고, 캄보디아 Hun Sen Angsnoul High School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프로그램 참가국 대표님, 선생님, 학생, 직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원격수업 절차에 따라 재개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각국의 교류 학교들은 서로 다양한 공동 학습 활동을 논의하고 채택했습니다. 앞서 발표를 통해 많은 분들의 활동 경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몽골,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역시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Rotana Prum이고, Rotana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캄보디아 Hun Sen Angsnoul High School의 영어교사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캄보디아의 Hun Sen Angsnoul High School과 대한민국의 시온고등학교 간의 2022년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세계시민교육 활동 요약(GCE Activity Summary)"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먼저, 활동 계획에서는 주로 목표 및 학습 과정을 논의합니다. 수업절차에서는 온라인 공동수업을 운영한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의미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교훈과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찰을 통해 Hun Sen Angsnoul High School 학생들의 영상과 시온고등학교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활동 계획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교류 학교와의 신중한 논의와 고려 끝에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현지에 맞게(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주제로 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특정 수준의 고등학생에게 다음의 4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첫째, 세계적 문제 및 지역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자극할 수 있고, 둘째, 자율성과 협업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발표 능력을 훈련하며, 셋째,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외국인 친구들에게 배움으로써 서로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서로 소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학생들이 할당된 주제에 대해 창의성을 발휘하여 과제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팀 관리와 문제 해결을 다루면서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이 기술은 모든 학습 활동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절차'를 도입하여 4단계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 자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 연구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정보를 수집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해결책 또는 실행 계획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무엇이 가능한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마지막은 이를 실행 및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 도구로써 패들렛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소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학생들은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현지에 맞게(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그룹 활동을 위해 패들렛 1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들은 댓글을 달아 다른 그룹이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작업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패들렛 2를 통해 개별 미션이 제공되었습니다. 2주마다 선생님들은 번갈아 가며 재미있는 미션을 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는 두 개의 패들렛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류 프로젝트를 운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총 16명의 한국 학생과 25명의 캄보디아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캄보디아 학생들로 구성된 5개팀과 한국 학생들로 이루어진 4개 팀으로 총 9개의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각 그룹은 짝을 지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해독능력)", "제로웨이스트", "동물 권리 및 문제"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과제가 지정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두 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관련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관심 범위를 정하고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각 팀이 SDGs의 중요성과 유관성을 중심으로 주제와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그 진행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3회의 공동 실시간 수업과 5회의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정은 학생들이 쉽게 따라하기 쉬워 보였지만, 학습자 중심의 과제인 만큼 각 단계마다 작업 시간이 길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팀워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 우리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좀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수업 절차 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온라인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자신이 수행한 작업을 패들렛에 업로드하면 다른 그룹들이 보고 코멘트나 질문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업 형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온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한 작업을 패들렛에 업로드하여 다른 그룹이 다른 그룹들이 보고 피드백이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수업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소셜미디어에 비디오를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과 학습 내용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9개의 팀이 있었는데 각 팀이 3분간 영어로 발표를 했고, 발표 다음에는 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사전에 댓글이나 질문을 패들렛에 업로드를 하고, 이 내용을 논의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발표 슬라이드를 사용했는데 이 슬라이드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나 영어로, 아니면 크메르어로 사전에 질문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며, 우리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미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면서, 물론 저희도 관찰했지만, 학생들도 스스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했는지,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히 배운 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였습니다.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는데, 먼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참여였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에서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과 지식 확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모든 학생들이 팀으로 일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으로 일하는 법과 타협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견에 타협하는 법과 소속감과 책임감을 키우는 법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및 연구와 ICT 기술 역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를 활용해서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또 말씀 드린 대로 ICT 활용 능력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ICT를 처음부터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비디오를 만들고, 자막을 넣는 등의 방법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언어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외국 친구에게 전달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학생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 모두 긴장을 했었는데, 이러한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어 능력, 특히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연마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구사할 때 각 나라마다 약센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다른 국가와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은 교류 활동 이후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네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과정 이외의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학습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학습 전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동기부여 그리고 멘토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기여를 해 주신 모든 교사 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매년 우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드린 대로 학생들의 동기부여 그리고 멘토링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싶는데 선생님들께 연락 드리기가 걱정이 되고, 또 내가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학교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임팩트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APCEIU에 이 프로그램을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글로벌 이슈 그리고 방법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사의 토론과 협업을 통해 학습지도 방법론을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 성과와 재미있는 학습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 참여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고등학교 학생들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큰 박수 우리 시온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 학생 1 안녕? 내 이름은 궁금이. 궁금해, 궁금해~ 난 세상의 모든 게 궁금해. 여기는 어디이고, 여러분은 누구세요? 어, 이 친구들은 누구지?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이 친구들을 알아봐야겠어. 애들아 안녕? 너네는 MBTI가 뭐야?

○ 학생 2 나는 ISTJ야.

○ 학생 4 나는 ENTP~

○ 학생 5 나도 ENTP야.

○ 학생 1 궁금해. 궁금해. 두 번째 친구는 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거야?

○ 학생 3 요즘 누가 MBTI를 물어보니? 요즘 대세는 GCED!

○ 학생 1 뭐? 궁금해, 궁금해. GCED가 뭐야?

○ 학생 2 Z!

○ 학생 3 A!

○ 학생 4 !!

○ 학생 5 M!

○ 학생 1 오, ZAIM? 궁금해, 궁금해~ 이게 뭐야?

○ 학생 2 Zero Waste.

○ 일동 A~!

○ 학생 3 Animal Rights.

○ 일동 I~!

○ 학생 4 Inequality.

○ 일동 M~!

○ 학생 5 Media Literacy.

○ 학생 1 오, 아주 흥미로운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이고, 어떤 활동을 한 거야?

○ **학생 2** 안녕? Zero Waste 팀의 강예원이야. 우리는 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인 팀이야. 처음엔 문제 탐구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패스트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안 입을 옷들로 곱창밴드와 머리핀을 만들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어. 그런데 캠페인을 통해 옷을 모았는데 그 옷을 지역 중고샵에 기부하기도 했었어.

○ **학생 3** 안녕? 나는 제로, Animal Rights 정현욱이야. 우리는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인 팀이지. 탐구활동을 하면서 길고양이를 돌보며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해 보고 싶었어. 수의사 선생님의 조언과 부천 시청의 도움을 받아 우리 학교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도 해 주었지. 중성화 수술이 고양이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시에서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을 돌보며 입양을 도와주는 고양이카페에 대해 알게 되었어. 우리는 그곳에서 봉사하며 동물들도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이 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

○ **학생 4** 안녕? Inequality 팀의 송연주야.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팀이지. 우리는 탐구활동을 통해 시각 장애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분들의 일상 속에 있는 불편함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시각 장애 전문 도서관을 방문했어. 그곳에서는 직접 시각장애인을 뵈고 인터뷰도 했지. 그리고 그때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매너를 배우게 됐는데 그 매너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학교에서 캠페인을 벌였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캠페인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웠던 기억이 나.

○ **학생 5** 안녕? 나는 MEDIA LITERACY 팀의 한수혁이라고 해. 우리는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인 팀이야. 우리 팀은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MEDIA LITERACY를 공부했어. 이 책은 미디어에 담겨있는 다양한 혐오와 차별이 소개되어 있었어. 캄보디아 친구들과 국제교류를 하던 중이라 그런지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에 관심이 생겼고,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했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캄보디아 출신의 대학생과 중국 출신의 또래 친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어.

○ **학생 2** 이렇게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가 탐구했던 내용들을 학교 친구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 **학생 5** 그래서 우리는 모둠별로 직접 창체 시간에 활동을 개발하고 이렇게 운영하기도 했지. 기대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창체 시간에 너무나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어.

○ **학생 1** 우와~ 모두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구나. 궁금해 궁금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줘?

○ **학생 2**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모은 옷을 아름다운 가게라는 지역 중고샵에 기부하게 되었어. 그때 그곳에서 봉사하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훗날 나도 대학생이 되면 그곳에서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

○ **학생 3** 우리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도 길고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돌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우리가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게다가 고양이 사료를 먹기 위해 나타난 너구리들 때문에 우리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더 어려워졌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해 공동체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직접 마주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 어떻게 하면 동물들과 인간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지.

○ **학생 4** 우리가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가능 스티커를 배부하러 갔을 때야. 안내견의 입장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가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속상했어. 그래서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스티커를 부착했지. 그때 사실 거절 당할까 봐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다행히 우리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어.

○ **학생 5** 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섭외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다문화 관련 기관들과 대안학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외국인 출신의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 꽤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지역사회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정말 씁쓸했지. 결국 우리는 MEDIA LITERACY 팀답게 SNS로 외국인을 섭외하기로 했어. 유튜브를 열심히 찾던 중 한 채널에 캄보디아 출신의 대학생이 나온 것을 발견했지. 이분께 인스타 메시지로 섭외를 요청했지만 스케줄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고 하셔서 대신 친구들을 소개해 주셨어. 덕분에 이분들이 크메르어 통역도 해 주시고 인터뷰에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 이렇게 어렵게 맺어진 인연이라서 그런지 나는 이분들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

○ **학생 1** 우와~ 모두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했구나. 궁금해, 궁금해~ 너희는 활동 전과 활동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

○ **학생 2** 이전의 우리는 GCED에 잘 알지 못했어. 지구 환경이 위협받는지 알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 **학생 3** 우리는 동물을 좋아했지만 동물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동물의 권리도 인권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 **학생 4** 맞아, 예전에는 장애인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안타까운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고 그들을 대할 때는 특별한 매너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어.

○ **학생 5** 우리는 늘 접하는 미디어 속에 생각지도 못한 혐오와 차별이 있다는 것에 꽤 충격을 받았었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게 됐지.

○ **학생 1** 아하~ 너희는 전보다 좀 더 섬세하고, 풍부한 감수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 **학생 2**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같이 해 준 캄보디아 친구들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특히 시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만남 때마다 저희 일정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 된 것 같아요. 로타나 선생님 사랑합니다.

- 학생 3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시온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프로젝트를 빛내준 시온고 친구들도 수고했어.
- 학생 5 저희가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신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교육원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학생 4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니까 끝난 거 같죠? No, No, No~ It's your beginning!
- 학생 일동 What's your GCED?



07 22년도 우수 사례 발표 1-2

일 시 | 2022. 11. 24. (목) 13:00~14:25

사 회 | 박소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전문관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

번호	이름	소속	발표 제목
1	Jinnita Pongjakthanachot	태국 Princess Chulabhorn Science High School Chiang Rai	점점 가까워지는 너와 나
2	김태영	한국 서하초등학교	너와 나, 지구촌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3	Keomoukda Kattiyavong	라오스 Dongkhamxang Demonstration Primary School	한국-라오스 온라인 교육교류
4	Diana Alui Daniel x 대전삼천중	말레이시아 SMK Merapok	세계시민, 글로벌과 전통문화를 함께 잇 다

1. 점점 가까워지는 너와 나

Jinnita Pongjakthanachot, 태국 Princess Chulabhorn Science High School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즐거운 점심시간 되셨나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라이 Princess Chulabhorn Science High School의 교사 Jinnita Pongjakthamachot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의 파트너 학교인 경주고등학교와 함께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주고등학교 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특히 집중을 했던 주제는 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한 개발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말씀을 다음에 네 가지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요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발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APTE 2022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주제 '교육활동에 대한 요약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GCED의 주된 주제는 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한 개발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과학고등학교이다 보니 과학적인 지식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주제를 원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식품 보존 문화였습니다. 저희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의 식품 보존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 보존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식품 보존을 소개했던 첫 수업입니다. 첫 수업에서는 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발효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한국의 김치와 이와 비슷한 태국 음식인 배추절임을 비교했습니다. 절인 배추 또는 배추절임은 주로 태국 북부 지역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첫 수업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소개했고, 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식품을 보존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보존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보존을 하는지 또 각기 다른 발효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학생들이 보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배운 다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룹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발효 과정 이후에도 결국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현지 문제와 관련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전략은 재활용 과 재사용이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이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 전략과 연결을 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과 여기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 프로젝트의 주제는 바로 '너와 나 가까이 다가가기'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간의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고, 각기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전통이나 인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줌 화상 회의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상 온라인 도구로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또 슬랙과 같은 채팅 툴을 활용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세 차례 수업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목적과 일정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학생들이 서로 간에 좀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서로의 언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배우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 학생들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한국 학생들은 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패들렛에 짧은 자기소개 영상을 올리게 했고, 다른 학생들이 이걸 보고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동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가르치고, 또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교사는 그저 진행자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수업을 정리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여가활동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기숙학교이고 저희 파트너 학교는 남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로워 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활방식이나 여가생활과 관련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공동 프로젝트의 마지막 수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친구에게 작별 인사하기'였고,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관련된 활동을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3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다빈치라는 게임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말을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능감생단(Ngam Seang Dean)이라는 태국 전통 춤을 가르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함께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실 모든 내용이 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두 개 학교의 학생들 모두가 다 문화 전통 인식의 차이점과 또 유사성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들을 소개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경주고등학교 인스타그램이고 오른쪽은 저희 학교 인스타그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접속을 해서 함께 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슬랙 채팅, 슬라이드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툴을 활용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교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저와 저의 동료들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저희의 과목에도 이를 더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가르치는 교과목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화학이나 생물, 또 수학 교사들이신, 이분들께서도 이 개념을 이제 자신들의 교과목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태국의 교사들이 서로 간에 가르치는 방법이나 또는 교수법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인 차원으로도 협력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함께 협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배경이나 또 각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로서 결국 중요한 것은 상호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과 교사들 모두가 APTE 2022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모든 교실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세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데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지요.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1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에서 학생들이 와이파이로 태블릿을 쓰는 걸 보았는데요. 와이파이로 쓰신 게 맞나요?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machot 네 맞습니다.

참가자1 와이파이가 안정적이었네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다 첫 수업을 망쳤거든요. 아마 제가 한국의 와이파이 안정성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첫 수업을 그것 때문에 망치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온라인 교류수업을 진행할 때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셨는지요?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machot 사실 저희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우선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넷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였고요. 혹시라도 와이파이 연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모바일로 연결을 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친구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나, 다른 계정으로 학습자료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계정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만약 과정에서 인터넷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친구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너와 나, 지구촌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김태영, 한국 서하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하초등학교 교사 김태영입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온라인 교육교류활동의 진심을 담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국내외 선생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과 저희 학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온라인 교육교류프로그램은 저희 학교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고 또한 행복한 배움의 과정이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경남 함양의 작은 시골 학교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류 활동에 선명한 저희 학교와 캄보디아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DGs와 문화를 연계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시민교육과 문화교류활동을 하였던 학생교류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 저희 학교가 어떻게 온라인 교류를 이어나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서하초등학교는 전교생 26명인 산골의 작은 학교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하고 올바른 심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활동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3, 4, 5, 6학년 담임교사와 영어 전담교사인 제가 연구회를 조직하여 17명의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교류를 진행한 파트너 학교는 캄보디아의 Vathanak Chuong Leap High School이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교사 다섯 분과 순수한 마음과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온라인 수업에 있어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었습니다. 수업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시민교육인 SDGs를 주제로 각 나라의 문화적인 요소를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업활동과 자료에 있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한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하는 교사에 있어서는 한국 교사와 캄보디아 교사의 연계를 통해 협력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6가지 온라인 수업을 함께 고안하고 준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은 캄보디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제는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SDGs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햄버거 커넥션으로 연결시켜 SDGs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SDGs를 글로벌 이슈와 연결시켜 살펴보는 학습지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메모리 매칭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SDGs에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SDGs를 선택하여 새롭게 마크를 디자인해 보았고 자신의 디자인을 패들렛에 올려 다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은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언어인 크메르어와 평화를 주제로 캄보디아 선생님이 수업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선생님들은 중학교에 근무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색칠하고 꾸미기, 비둘기 종이접기 등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크메르어를 처음 접했는데 크메르어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를 크메르어로 배워서 말해 보는 활동을 꼽기도 하였습니다.

이 활동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캄보디아 학생들과 서하초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기후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플립 러닝과 블렌디드 러닝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전 과제로 수업에 대한 영상을 미리 시청하게 하였고 실제 온라인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티미터, 락터벨 등 새로운 온라인 수업 도구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들 휴대폰의 어플을 다운받게 하고 연습활동을 제시하여 기능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더 많은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수업은 서하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선생님께서 캄보디아 전통 벼농사 방법을 소개하고 협력과 친환경적인 삶의 모습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하초 학생들은 캄보디아 벼농사 방법과 쌀을 먹는 음식 문화가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에 굉장히 흥미로워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퀴즈, 수수깡 부러뜨리기 활동 등 재미있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이끌어내며 쌍방향 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실제감 높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온라인 수업이 항상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학생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워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수업활동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한 적도 있었으며 수업 중 사운드상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실수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한국 교사들과 캄보디아 교사들이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수업에 대해 협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 번째 수업인 제로 웨이스트를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한국 학생과 캄보디아 학생이 모두 참여하였고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에 크메르어 자막을 추가하여 양국의 학생들이 사전 과제로 미리 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퀴즈를 풀 수 있는 게임을 통해 두 나라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활동인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포스트잇의 적기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교류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문화교류활동을 통한 문화 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함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체험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 활동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의미 있는 학생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문화 교육활동을 비롯한 세계시민교육활동을 진행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 실제 학생들 간 문화교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에 동료 교사들과 전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협의하였고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학년군별 교과 재구성을 통한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학생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도서를 비치하고 교실 벽면 환경을 세계시민교육과 온라인 교육교류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원격 연수를 수강하고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도서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읽고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경남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교구 대여 사업을 통해 전통 의상, 소품, 놀이 도구 등 다양한 캄보디아 교구를 대여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캄보디아 문화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교대 다문화 교육센터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전통 놀이, 전통 악기,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국제교류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배우며 지역사회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학생들과 문화교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패들렛에 올려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급식, 김밥 만드는 방법, 함양의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인물 등을 소개하였고 캄보디아 학생들은 캄보디아 전통 놀이, 전통 춤, 인사법 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실시간 교류 시간을 통해 두 나라 학생들이 함께 온라인 퀴즈를 풀어보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전통 의상, 전통 소품, 간식 등 정성스레 준비한 컬처박스를 구현하였는데 이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서하초등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하고 온라인교류활동을 직접 실행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를 보는 시야가 확대되었고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 세계시민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배움과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생 참여 기반의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학교와 함께한 온라인 교류 활동이 저희 학교가 세계시민교육과 온라인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서하초의 중점교육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른 나라의 학교와 온라인 국제교류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국제교류 동아리, 다문화교육활동, 환경교육, SDGs 및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수나 책을 통해 꾸준히 연구하며 국내외 교사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하초등학교의 행복했던 온라인 국제교류의 추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 이야기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온라인 교류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과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었던 서하초등학교와 바타낙 총립 하이스쿨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 학교와 가정에 항상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한국-라오스 온라인 교육교류

Keomoukda Kattiyavong , 라오스 Dongkhamxang Demonstration Primary School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라오스의 Keomoukda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라오스-한국의 2022년 APTE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슬라이드 7장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실행 절차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라오스-한국의 교류 프로그램의 진행을 크게 3단계로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준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23일, 프로젝트의 주최 측이 줌 화상회의를 준비하여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고 각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주최 측(APCEIU), 한국 교사들, 라오스의 주최측과 코디네이터들 그리고 Dongkhamxang Demonstration Primary School과 BanKeun Secondary School 의 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 단계입니다. 2022년 8월 한국 측의 협력 상대인 분포초등학교와 함께 교습 방법과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이후 Dongkhamxang Demonstration primary school의 4, 5학년 학생 50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라오스 언어, 도덕 그리고 과학환경 이렇게 3개 과목을 가르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6일 파트너들과 줌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 8일 파트너들과 다시 한 번 화상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라오스 프로젝트의 주최 측과 라오스 코디네이터들이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활동 주제, 수업 내용 그리고 수업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라오스 교사가 네 차례 수업을 하고, 한국 교사가 네 차례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번째 단계는 마무리 단계(프로젝트 결과)입니다. 한국-라오스 온라인 교육 교류사업은 5번째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프로젝트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프로그램의 첫 회의 당시 사진으로 담당 위원회에서 저희가 교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파트너들이 활동과 수업 일정을 조율하고 한국 학생들을 위한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라오스 교사들이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 교사들은 라오스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예산과 인터넷 네트워크, 원격 회의를 위한 카메라 혹은 스피커 그리고 화상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라오스 국가위원회에서 한국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지침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배정 받은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라오스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통역사도 있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비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또한 활동에 굉장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부 교사들은 ICT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것 또한 처음이다 보니 교육의 내용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소통이 명확하지 않은 순간 또한 있었습니다. 원격 학습에 있어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도 있었고, 일부 학생들과 또 교사들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못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교류는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라오스 교사가 라오스어, 도덕, 과학 환경 이렇게 세 과목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의 주제는 자연의 중요성, 탕루 왕 축제(That Luang festival), 사랑, 평화 그리고 도로 안전이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라오스와 한국 학생들은 국내외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예의를 보이는 모습을 배우고,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은 라오스 남성, 여성이 입는 전통 의복이나 음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인종이나 국적, 피부색을 넘어 서로 어울리고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t Luang 의 역사와 축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으며, 모든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학습하였습니다. 라오스 학생들은 전통적인 관습, 복식, 음식, 전통적인 춤 같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패들렛(padlet)과 같은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사진이나 활동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사들 또한 학생 중심 수업의 학습 스타일을 배우고 또 한국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라오스와 한국의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라오스 국가위원회에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첫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학생들이 한국 교사와 함께 학습하고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한국 교사가 양국의 놀이 문화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라오스 국가위원회에 저희의 결과를 소개하는 세미나 사진입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 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 할 수 있으며, 수업의 일관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라오스-한국 교류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지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능하면 저희 라오스 교사들은 대면수업과 교류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라오스와 한국의 교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세계시민, 글로벌과 전통문화를 함께 잇다

Diana Alui Daniel x 대전삼천중, 말레이시아 SMK Merapok

여러분 안녕하세요, SMK Merapok과 말레이시아를 대표로 발표를 진행할 Diana Alui Daniel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라왁 보르네오섬(Borneo)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루번, 타아골, 카다잔 등등 원주민 부족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은 Kaith Princess, Norfarhana, Sapri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개의 라이브 레슨과 2개의 녹화 레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SMK Merapok에서 4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저희 학교의 자매 학교인 SMK Lawas 그리고 SMK Sundar에서 각각 5명의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학교와 교류한 학교는 대전삼천중학교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저희의 첫 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수업에서, 각 국의 한 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10대 시절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찍어 공유했습니다.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타갈(Tagal)이라는 원주민 부족 출신의 말레이시아 학생 Sylviency가 자신이 외딴 마을에 첫 졸업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교육계와 취업 시장에서 여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타갈족의 언어로 짧은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해당 발표는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타국의 학생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은 Kaith 선생님이 Sapri 선생님 집의 임시 장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이 수업이 진행되던 당시, 학교의 인터넷 서비스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사들은 사전에 계획을 통해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임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Sapri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전 수업을 통해 인터넷이 불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의 초등학교(SMK Merapok 초등학교)에서 수업을하기로 했습니다.

Sapri 선생님의 수업은 '다양성 존중'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능력을 가진 부족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이야기했고 엄청나고 참신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초능력,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식량을 생산하는 능력, 전쟁이 심한 지역에 평화를 선물하는 능력을 가진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독특한 점을 놀리지 않는 것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후 발표도 진행하였는데, 보통은 조용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용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원해서 발표를 했고 저는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발표에 있어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극복하고 발표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면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다 보니 공포를 이겨내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녹화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Norfarhana 선생님께서 탈론(Talun) : 나무껍데기 예술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밖에 전시 테이블에도 전시해두었으니 시간이 날 때 전시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의 취지는 SDGs14에 입각해서 나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탈론이라는 나무는 보르네오 우림에 있는 토종 식물입니다. 잭푸르트 종에 속하는 이 나무는 사와라키안(Sarawakian) 부족의 타투에 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바라키한 부족민들은 이렇게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타투의 의미와 한국의 모티브를 함께 접목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문신 디자인에 한국의 디자인과 색깔을 입히고, 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와라키안 부족의 여성들은 학생들이 만든 타투를 굉장히 좋아했고 사용하고 싶어했습니다.

올해 말레이시아 학교들은 2개의 자매 학교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매 학교인 SMK Lawas 그리고 SMK Sundar 학교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학교는 저희 학교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꽤 먼 거리이며 교통사정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콘퍼런스, 왓츠앱(whatsapp) 그리고 텔레그램 그룹챗(telegram chats) 등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코뿔새 깃털 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춤에는 4개의 기본적인 춤 동작이 있습니다. 기본 동작들을 익히고 Busak Baku라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야 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만들어서 삼천중학교와 SMK Merapok로 보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춤 동작을 미리 배워서 세 번째, 네 번째 수업에 좋아하는 한국 가요(케이팝)에 맞춰 춤을 쳤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SMK Merapok에 모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다 같이 모여 있는 저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춤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총 리허설을 한국 학교와 같이 했고, 너무나도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실제 퍼포먼스 당일 이 새로운 춤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경험을 동료 교사들과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팀원들 모두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하나의 팀으로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무척 뿌듯해 했습니다. 이 결과물을 위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든 사람, 사운드 시스템을 담당할 사람, 안무를 담당할 사람, 편곡을 담당할 사람 등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팀워크가 정말 훌륭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한국-말레이시아 우정·평화 팔찌 만들기였습니다. 학생들은 세라믹 비즈를 이용해서 우정·평화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즈도 하나하나 다 손수 만든 것입니다. 비즈마다 각지 다른 주제(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함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라믹 비즈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학생들은 팔찌를 만드는 시간 동안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고, 전통적인 비즈 제작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학생들이 팔찌를 같이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천중학교는 한국의 레이스 팔찌를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 다 자랑스럽게 이 팔찌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정말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주차에는 교사 감사 주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여 한국-말레이시아 교사 교류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전시하고, 사라왁 주 교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으며,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한 상'도 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스에 놀러 왔고, 떡볶이도 시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인구수가 아주 작은 부족들이 부스에 방문하여 한국하고 진행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족민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였고 이것을 너무나도 좋은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저희는 농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이고 팬데믹 이후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수줍은 학생이나 시골 학생들이 ALO나 Canva와 같은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기술의 일부 제약을 해결하였고 이제 학생들이 기술을 다루는 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글로벌 학습자와 글로벌 리더가 되는 모습, 특히 다른 나라 동료들을 이끌고 그룹워크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평화라는 의미 있는 교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 간 차이를 극복하고, 거리를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해주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었겠지만 결국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리고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애제자들이라고 할까요, 삼천중학교의 학생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삼천중학교 학생들의 영문 토론 세션

○ 삼천중학교 김영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작업한 내용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천중학교 2학년 김영빈입니다. 대전시 서구에 있고, 총 학생 수는 943명입니다. 저희 동아리명은 세계의 이야기 동아리입니다. 14명의 학생들이 동아리 회원입니다. 학교 전체에 비해 학생 수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공연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깃털 춤이고 두 번째는 팜유 플랜테이션과 관련된 토론입니다. 팜유는 식용, 바이오 연료, 화장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팜유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팜유는 굉장히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팜유 플랜테이션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지민과 시원 님이고요, 이후 은서와 수원 님이 반대 측 주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민 님이 찬성 측 입론을 해 주시죠.

○ **삼천중학교 박지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민입니다. 저는 찬성 측이고요. 팜유 플랜테이션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팜유 플랜테이션 유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팜유 플랜테이션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큰 역할을 합니다. 2011년에 팜유 산업은 말레이시아 국민 총소득의 168억 달러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경제에 네 번째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오일 팜 플랜테이션은 본질적으로 기계화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로 고속련 노동과 저속련 노동의 조합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빈곤 완화 메커니즘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팜유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을 도울 수 있는 훈련과 도구들을 제공받습니다. 이에 따라 28,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얻고 돈을 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팜유 플랜테이션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삼천중학교 김영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은서 님, 반대 측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천중학교 송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팜유 플랜테이션 사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삶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팜유 플랜테이션은 지금 당장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팜유 플랜테이션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오랑우탄입니다. Current Biology Journal의 한 논문에 따르면, 2015년까지 16년 동안 보르네오 섬에서 약 15만 마리의 오랑우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팜유 플랜테이션은 숲을 황폐화시킵니다. 팜유 플랜테이션의 생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이 불에 탔고 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잊으셔서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팜유 플랜테이션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삼천중학교 김영빈** 그러면 시원 님, 지금 반박 그리고 최종 변론 하시겠습니까?

○ **삼천중학교 김시원** 사실, 근로자들이 버는 임금은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은 인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팜유 플랜테이션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플랜테이션이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팜유 플랜테이션이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생산에 필요한 토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오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농부들은 1헥타르의 땅에서 2.84T의 팜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식용유 중에서 가장 적은 땅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기름인 카놀라 기름은 팜유보다 5배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팜유가 다른 기름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름들이 더 많이 생산될수록, 숲은 더 파괴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야자수 재배를 계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삼천중학교 김영빈** 마지막으로 수원 님께서 반대 측 반론 그리고 최종 변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천중학교 이수원** 지금 찬성팀이 정말 좋은 입론과 반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팜유가 생산되는 많은 곳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2017년에 Two Wilmar 자회사들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인권이 위반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은 안전 도구 없이 농약이 많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노동자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2.5달러도 받지 못합니다. 인간 중심의 경제논리 중 하나인 팜유 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효율성'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지구상의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팜유에 반대합니다.

○ **삼천중학교 김영빈**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팀이 더 잘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근데 사회자로서 이제 누가 이겼다, 판단을 해야 되는 어려운 주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한테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 어린이들, 여성들이 설령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어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인권 침해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말레이시아의 전통 깃털 춤입니다. 6명이 이제 춤을 출 겁니다. Busak Baku 노래에 맞춰서 한채 님이 노래를 해 주실 거고, 저희 선생님께서 해금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쁩습니다. 저희의 공연과 토론을 잘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8 후속교류 우수사례 발표 II -1

일 시 | 2022. 11. 24. (목) 14:45~15:55

사 회 | 이승희아나운서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

번호	이름	소속	발표 제목
1	Noemi S. Baysa	필리핀 Malabon National High School	PIGEON (온라인 신문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프로젝트)
2	안봉선	한국 송정동초등학교	韓 마음, 多 가치 교실의 경계를 넘다.
3	D. Urantogos	몽골 Khalkhgol Secondary School	국경을 넘어 함께 발전하기
4	Siwarin Saeheng	태국 Streesmutprakan School	같은 하늘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1. PIGEON (온라인 신문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프로젝트)

Noemi S. Baysa, 필리핀 Malabon National High School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한국-필리핀 교사 교류 프로그램(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rogramme, KPTEP)의 필리핀 대표로 참여한 Noemi S. Baysa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시민교육을 일깨워 준 KPTEP 여정을 통해, 저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제 역할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실제로 제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PIGEON(Project I Commit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Online Newspaper, 온라인 신문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전념 프로젝트)을 시작했을 때 의도했던 바입니다.

교육 2030 의제 및 실천 요강의 지속가능발전목표 4.7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필리핀 수도권 말라본시의 Schools Division Office에서 Malabon National High School의 전현직 캠퍼스 기자들과 함께 시작한 온라인 출판물인 PIGEON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PIGEON은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PIGEON은 다양한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춘 학생들의 작업을 특징으로 합니다. PIGEON은 뉴스, 특집, 오피니언, 사이언스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기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진, 삽화 및 문학 작품과 같은 예술 작품도 실고 있습니다.

PIGEON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사회입니다. 인종, 문화, 종교, 언어, 성별, 신념을 초월해서 상호 의존된,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의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화의 주체가 되자.’라고 사명을 세웠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세계시민에게 영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키고, 또 이 청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PIGEON을 처음에 설립했을 때 학생들과 일하게 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고 SDGs GCED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홍보활동의 일원이 돼달라고 부탁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제 요청에 부응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잘 아시죠? 바로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PIGEON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스태프와 함께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사를 쓰고, 편집하고 또 레이아웃을 맞췄습니다. 웹 사이트는 팀이 디자인하고 비평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 소셜 미디어 계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티저가 생성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에서 이미 지역사회 격리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각자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가 PIGEON에 쏟아 부은 노력 끝에, 마침내 우리는 2020년 4월에 공개 웹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그 어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작업이 실행단계에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독자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에게 PIGEON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구현 6개월 후, 우리는 목표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요, 우리가 출간했던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기사와 그 기사에 해당하는 특정 SDG를 매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SDG와 GCED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재한 각 기사나 작품은 특정 SDG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독자를 살펴봤습니다. 기사가 SDGs를 다루는 기사였지만 만약에 아무도 이 기사를 읽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PIGEON의 통계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독자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일간 평균 조회수가 300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1천 회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3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단위의 조회수를 봤을 때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4월에는 월 5천 건수였는데 이제 12월에 들어서면서 9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저희가 받았던 결과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116명의 독자 응답자와 29명의 작성자 응답자는 모두 PIGEON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PIGEON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PIGEON의 3E(EDUCATION, ENLIGHTENMENT, EMPOWERMENT)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PIGEON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PIGEON을 통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및 인식을 얻었다고 말함에 따라, 교육(EDUCATION)적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28%가 PIGEON을 통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세계시민의 길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함에 따라, 계몽(ENLIGHTENMENT)이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12%가 PIGEON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참여했다고 말함에 따라 역량 부여(EMPOWERMENT)가 세 번째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가 응답자의 경우 38%는 역량 부여(Empowerment)를 느꼈으며, 35%는 계몽(Enlightenment) 면에서, 28%는 교육(Education)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2PIGEON은 제가 초청교사로서 한국에서 3개월 간 경험을 쌓은 후, 2019년의 제 REAP(Re-entry Application Project, 재입국신청프로젝트)였습니다. 저와 제 팀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제4회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연례 교사 교류 포럼(Annual Forum on Teacher Exchange towa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서 PIGEON은 재입국신청 프로젝트 우수 구현(Best Implementers of Re-entry Application Project)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교육의 혁신 사례로서 PIGEON은 2020년 12월 OECD, 유네스코 및 교사 태스크포스(Teacher Task Force)에 의해 Global Teaching Insights 플랫폼의 특집 영상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PIGEON은 DepEd 웹사이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전 교육부 장관인 Leonor Magtolis-Briones는 PIGEON 이 교육과 청소년 참여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지지와 찬사를 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5일에 저는 OECD, UNESCO, Teacher Task Force에서 진행한 'Conversations on Teaching' 온라인 시리즈에서 위기의 시기에 청소년을 위한 사회 정서적 지원으로서 PIGEON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패널 중 한 명으로 초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찬사는 그저 보너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저희 PIGEON 편집자 중의 한 명의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PIGEON이 어떻게 그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maranth Xena Soleil Saludar입니다. 저는 PIGEON이 어떻게 저에게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저는 PIGEON이 작가이자 학습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민으로서 제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께 공유할 것입니다. 저는 PIGEON을 통해 의미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또한 저는 내가 쓴 글의 주제가 된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단체 중 일부에서 대사, 회원, 심지어 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신문에 그러한 단체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단체를 옹호하고 홍보하는 등 이러한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저는 더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의 글의 주제가 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관점들로 인해 더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PIGEON은 비판적 사고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공감대 형성 등과 같은 삶의 필수적인 기술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일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maranth는 PIGEON의 편집자이자 작가이자 연구원입니다. 영상에서 Amaranth는 PIGEON을 통해 자신이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발전시킨 방법과 어떻게 더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PIGEON은 그녀가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PIGEON이 미친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Kristine Crisseda Mangareng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사인 Kristine Crisseda Mangareng는 말라본 시에 있는 Longos National High School의 9학년 교사입니다. 그녀는 아동의 영양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인 Project Ulayaw: Above and Beyond의 창립자이자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암으로 잃은 극심한 고통에서 스스로를 치유한 자신의 이야기가 PIGEON에 실렸을 때 Project ULAYAW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Project Ulayaw: Above and Beyond를 설립한 것은 Pigeon 덕분입니다. Pigeon은 저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독자들의 행동에 영감을 줌으로써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PIGEON은 우리 작가들이 전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독자들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모델이 되었으며 독자들에게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PIGEON에서 우리는 필리핀과 국경을 넘어 모든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고,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韓 마음, 多 가치 교실의 경계를 넘다.

안봉선, 한국 송정동초등학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 안봉선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다문화가정대상국가 필리핀 파견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저의 교육적 관심의 영역을 국제교육교류, 세계시민교육으로 확장해주었습니다. 2014년의 경험은 하나의 물꼬를 여는 것과 같이 교사로서의 저의 삶을 참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필리핀 파견 이후 저는 국제교육교류와 세계시민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네스코학교 운영의 경험으로 '한·일 교사 대화 일본 방문', '해외 ICT 베트남 연수 강사', '학생 앱 개발 하와이 세계대회 지도교사', 필리핀에서 열린 'APEC 국제교육협력 사례 발표' 등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2년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에서 파견근무 하였습니다. 첫째 제가 맡은 5학년에는 '세진'이라는 학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현지 학교 직원을 초대해서 같이 수업했던 건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손가락 모양을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저 남자아이가 하고 있는 크로스드 핑거는 나쁜 욕이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좋은 뜻으로 '당신의 행운을 빈다.'는 손가락 표시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캄보디아인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저는 다문화 또는 세계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두 가지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모두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엄마의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금도 이 학생들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코로나 시기였지만 IT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물리적 경계를 넘어 더 많은 교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교류학교를 찾아 국제교류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현재는 필리핀 2개 학교, 캄보디아 1개 학교와 비대면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e-러닝 세계화 교사단으로 탄자니아의 교사들에게 IT 수업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류국 교사들의 적극성과 성실한 준비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들은 필리핀 전통춤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실시간으로 전통음식 만드는 법을 시연합니다. 이분들을 통해 우리 반 아이들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국제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익히고 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국제교류를 비대면으로 실천하였는데, 올해 8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교육원에서 주관한 한국어교사 대상 수업지원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서예, 체육활동, 소프트웨어 코딩까지 한국의 여러 가지 수업기술을 2주동안 전수하였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저는 국제교류를 통해 항상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은 임신 9개월의 몸으로 파견단 수업을 듣기 위해 지방에서 수도인 타슈켄트까지 27시간 기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지난 10월에 비대면 원격 연수 때 9월에 태어난 아이를 보여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홀로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분입니다. 내가 쉽게 생각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와 소망이라는 생각에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사명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파견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은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에 있다고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은 K-Pop 아니라 K-Educa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K-Education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이러한 교류의 장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험의 시작을 마련해 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국경을 넘어 함께 발전하기

D. Urantogos, 몽골 Khalkhgol Secondary School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세종시에 있는 광안중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2019년 APCEIU의 사업을 통해서 펼쳤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거리와 공간의 제약 없이 발전합시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소개 이전에 저희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몽골과 한국의 비슷한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몽골과 한국의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하는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똑같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비행기를 타고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몽골 Khalkhgol이라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에서 저희 학교까지 7시간 3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몽골과 한국 국기 모두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한국은 몽골에 비해서 15배 정도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학생들이 조사해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인구가 몽골 인구에 비해 17.5배 이상 많다는 것을 학생들이 조사해왔습니다. 몽골은 194개국 영토 크기 순위에서 24위를 차지할만큼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 수는 146위라는 것을 학생들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도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주제는 '국경을 넘어 함께 발전합시다'였습니다. 저는 Khalkhgol 지역 통합학교의 물리학 교사 Urantogos라고 합니다. 또 우리학교의 영어 교사 나상졸 선생님, 또한 초등반 교사 어치계를 선생님, 사회교사 졸자야 선생님, 그리고 Khalkhgol 지역 12번 학교 영어교사 앙크토야 선생님이라는 5명의 교사가 이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광탄중학교와 협력을 통해서 이번 PLANETS 사업을 같이 실천해 나갔습니다.

APTE 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를 저희가 설정하기도 했고, 저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국제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역사와 문화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관련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KlakhGol 지역 75명 학생 또한 교사 4명, 또 헤를렝 지역 12번 학교의 학생 75명과 교사 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진급하는 학생들 10명과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저희가 범위 내에서 기초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각 학생 집에서 접속해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면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교사에게 수업을 듣거나 외국 교사와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문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알려주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인터넷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 인터넷을 수업에 활용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몽골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용 부담이 매우 컸다는 점도 가장 큰 악영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속소가 제공되지 않아서 교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실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네 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한국 학교와 협력을 통해서 양국의 역사, 문화, 교육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로운 학습법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공동으로 온라인 수업을 네 번 개최했습니다. 양국의 학교 수업을 서로 비교하는 수업을 계획하기도 했고, 몽골의 전통 음식, 전통 의상, 전통 노래, 마당 축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와 역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공동으로 온라인 수업을 네 번 개최했습니다. 양국의 학교 수업을 서로 비교하는 수업을 계획하기도 했고, 몽골의 전통 음식, 전통 의상, 전통 노래, 마당 축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와 역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사진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몽골 교사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또한 교사 역량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한국 교사들이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때입니다. 우리는 구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같이 배우고, 학습 방법과 교수법을 서로 전수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시행 범위 내에서 저희 몽골 교사들이 가르쳤던 교육내용, 수업내용을 PDF로 따로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사들이 보내준 여러 가지 수업 도구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이걸 앞으로 저희가 교실 교육을 실시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선생님들이 보내준 수업 도구를 몽골 학생들의 수업에서 사용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양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통해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저희가 도심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 특히 인터넷 사용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교실이 가능하게끔 온라인 강의실 설비를 정비하고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5명의 교사는 온라인 수업 커리큘럼 구성 방법을 새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몽골축제에 전통음식 관련 온라인 축제를 내기도 하는 등 여러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몽골 전통 명절, 전통 음식, 전통 의상들의 자료가 풍성해져서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고 온라인 축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명을 '국경을 넘어 함께 발전합시다'라고 선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몽골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 다양한 것을 배우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대한민국 중학교 수업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었고,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35분 동안 수업을 하고 나서 남은 5분 동안 몽골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또 궁금증을 풀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평소 몽골 학생들이 40분 동안 교사에게서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새로운 교수 학습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수업이 몽골어와 한국어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역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질문들에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통역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니 교사들이 언어적인 면에서 편리했던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전공과목을 온라인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했고,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향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점도 있습니다.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선진화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사업실행 전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 몽골 교사들은 수업 도구를 구매하기 위해 1,000km 정도 떨어진 울란바토르에 가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같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Siwarin Saeheng, 태국 Streemutprakan School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초대해 주신 SSAEM 콘퍼런스 주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 Streemutprakan School의 Siwarin Saeheng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학교에서 수행한 프로그램 이후의 활동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발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 태국과 한국의 교류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진행 중의 어려움, 그리고 자부심과 성취가 그것입니다.

먼저 멋진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PTE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작은 역할을 하게 해 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IEU)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파견교사로 우리 학교에 영어를 가르치러 오신 박정원 선생님의 멘토(협력교사)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저는 서울 용화여고에서 태국인 초청교사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서 10학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태국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태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 학습 지도법 및 학교 시스템을 접했습니다. 또한 저는 기린초등학교와 서울공업고등학교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 태국과 한국의 교육제도의 차이점과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교류 프로그램(Student Exchange Program)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용화여고와 호주 학생들 간에 이루어진 화상수업(Conference Class)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태국 학생들이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의 생각, 관점, 태도에 대해 더 많이 배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여의도중학교를 방문하여 국제교류팀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위원회에 발표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기획하기 위해 하루의 만나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는 SSP학교는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이미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와 문화프로그램에 교육 과정과 활동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한국 학생교류프로그램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조직했던 것이지요.

다음은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학교 간의 학습과 교육을 조율하고, 둘째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학생과 교사 간의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고, 네 번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디어 창의성 교육 및 학습 방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프로그램관리에 제가 활용한 다섯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 학교와 함께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팀원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 학교의 외국어부서, 그리고 인류표준학교 부서의 직원들을 팀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대상은 모두 우리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기획 단계에서는 먼저 팀과 함께 과제와 기간 등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팀 내에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여의도 중학교와 공유를 하고, 이후계획을 함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실행단계에서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학생교류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관리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멘토링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우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에 메모하고 항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항상 소규모 회의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내년에 해결해야 할 목표 달성 및 문제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활동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벌써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첫 해인 2017년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해 Host Family Program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4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9박 10일간 태국 친구들의 집에서 지냈고, 태국의 호스트 가정이 홈스테이와 예산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많은 태국 문화 수업을 듣고 태국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태국 친구들과 방과 후 활동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28명의 태국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의도중학교는 2박 3일간 호스트 패밀리 프로그램과 한국 문화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컨셉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그 문화,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이어 갔는데 그 당시에 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을 통해서 여전히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세 가지 주요 활동을 제공했는데 첫 번째는 교실 내에서, 일반 수업의 참여였습니다. 학습 방식이나 학급 관리 그리고 아이디어 제시 등 일반 수업에의 참여를 통한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견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그 학생 버디 친구가 지역의 전통이나 문화, 랜드마크 등 지역 활동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견학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방식 그리고 개인 취향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버디와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과 태국 버디가 함께 특정 지역으로 가서 그 친구의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와 같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생활방식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021년 태국-한국 학생교류프로그램은 Gather Town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Gather Town 애플리케이션은 여의도 중학교에서 제공해 주신 겁니다. 여의도 중학교에서 그 당시에 포스팅을 해 양 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 속의 가상 세계에서 원하는 대로 아바타도 꾸미고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켜면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주요 활동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개회식이 양쪽 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 학교의 학생들이 교실을 보여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션은 버디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우리는 세계시민 대회(Global Citizenship Contest)를 열고 학생들의 작품을 공유했습니다. 약 30명의 학생들이 2021년도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한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2022년 줌을 활용해서 학생교류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또 한국 교사들과 서로 선물 교환식도 가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양 학교의 학생들이 선물을 공개하는 선물 포장해 뜯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서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케이팝, 타이팝, 전통 문화, 음식, 관행들, 관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어떤 부분에,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의 삶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모여서 앞으로의 진로, 꿈,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어떤 대학에 가고자 하는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서로 받은 선물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5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또는 생활방식에 대한 오해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양측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워크숍을 먼저 진행을 한 뒤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기는 좀 부족하여 개선방안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도전과제는 코로나19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줌, Gather Town, 구글 미트, 그리고 라인 등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활동을 진행할 때 시간이 촉박한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시민대회 조직의 경우, 학생들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다른 시간에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들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 발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얻은 자부심 그리고 성과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교육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PTE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교사들은 여러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코리아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헬로 코리아,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아리, 2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문화에 대한 많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국제문화 축제날에 한국공연을 했었습니다.

또 GCED 워크숍을 학생들을 위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언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언어, 한국 문화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문화 공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배움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Pakjira 학생은 1년 차에 이 태국-한국 학생교류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버디가 되어서 한국 학생을 10일 동안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Pakjira 학생은 지금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Pakjira 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Pakjira는 이 태국-한국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후속교류 여정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9 후속교류 우수사례 발표 II -2

일 시 | 2022. 11. 24. (목) 14:45~15:55

사 회 | 김하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전문관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I

번호	이름	소속	발표 제목
1	KEM Malyskrang	캄보디아 Vathanak Chhuong Leap High School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2	Frewendi	인도네시아 State Vocational High School 2 Sibolga SMK N 2 Sibolga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3	김선경	한국 용북중학교	지속가능한 세상, 지속가능한 수업!
4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말레이시아 Keningau Vocational College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나비효과

1.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KEM Malyskrang, 캄보디아 Vathanak Chhuong Leap High School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Vathanak Chhuong Leap High School 생물 과목 교사인 KEM Malyskrang 입니다. 2022년도 쌤 콘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글로벌 시민의 일부입니다"라는 주제로 후속 활동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좋은 오후입니다. 임현묵 원장님, APCEIU의 직원 분들, 초대 손님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발표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3년간의 한국에서의 교사 교류, APCEIU에서의 현지 적응, 순천시에서의 삶, 대부분의 경우 순천 효천고등학교에서 했던 실습들을 회상하며 후속교류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발표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험한 한국-캄보디아의 APTE 의 내용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온라인 수업, 비디오 제작, 사진 콘테스트 및 학교 커리큘럼 관련 후속활동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마주했던 과제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주 겪은 문제는 언어 사용,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장벽, 타이밍, 기술, 환경보호 구현에 대한 관심, SDG, 양성평등, 평화 증진, 의사소통 능력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이에 대한 제안과 피드백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캄보디아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기억해보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수업들을 경험하는 것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모든 학습 주제, 문화 적응,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언어, 세계 시민 교육, 수업 활동 창의성, 교수 방법론, 의사소통, 프로젝트 계획과 설계, 문서 자료 보관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목격했고 이해하였습니다. 현지 적응 연수, 그리고 한국 학생들을 3개월 동안 가르치고, 한국 교사들과 대면하는 특권적 경험들은 GCED(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생각의 반경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떠한 영역에서 제 생각의 반경을 넓혔는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E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이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비디오 제작, 온라인 수업, 모든 GCED와 APTE 경연대회 및 작은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순천효천고등학교와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월의 3개월간의 교류 활동을 끝낸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함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호스트 학교는 2020년 세계GCED와 관련 있는 “Making Global Friends Project”를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이 프로젝트는 세계 매우 창의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과 캄보디아의 학생들은 편지나 이메일을 서로 주고 받았고, 한국 학생들은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책과 비디오를 그들 스스로 제작하고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 역시 캄보디아어를 배우기 원하는 경우 캄보디아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캄보디아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를 한국어로 소개하고 한국어로 파트너교 학생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학생들은 캄보디아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선물들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저와 제 2019 APTE 동문 선생님들이 SSAEM과 APTE의 의미가 무엇인지 콘테스트에 공유한 자료입니다. SSAEM은 한글로 선생님의 약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의한 TEACHER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T=Talented (재능 있는), E= Elegant (우아한), A=Awesome (멋진), C=Charming (매력적인), H=Helpful (도움을 주는), E=Efficient(능률적인), R=Receptive (수용적인)

저는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많은 경험을 얻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실수도 했고요. 시간 관리적인 측면이나, 교수 자료들을 디자인 하는 것에 대하여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두 차례 수업 영상을 녹화했는데요, 다시 한번 APCEIU 관계자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사로서 저의 직업적 역량을 더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더 배우고 널리 알리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음악과 관련된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음악 수업과 관련된 새로운 GCED수업을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음악 수업에서는 실제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수업을 고안하기가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2021, 안녕 E-Friends! 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아까 소개 드렸던 “Making Global Friends”와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이메일로 소통하며 나눕니다.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 시킬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을 고안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직 아쉬움이 남는데요, GCED교육과정 연구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2022 Online APTE 참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GCED 자체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 다, 그런데 파트너교인 서하초등학교와 온라인 교육교류를 진행하면서, 특히 파트너교의 리드티처인 김태영 교사와 함께 하면서 그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2022 온라인 교육교류에서 정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평화를 사랑한다”, 두번째는 “협동하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쌀 수확”,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플라스틱 사용을 멈추자” 였습니다. 수업 이후 학생들은 세 개의 R: R= Reduce (줄이기), R=Recycle (재활용하기), R=Reuse (재사용하기)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프로젝트에서 다양성을 통해 평화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활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협력하며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시민이 누구인지, 비차별, 평화를 지향하는 다양성을 통한 문화적 이해등의 주제들을 이해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들의 배움의 성과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영어를 연습하고, 서로의 문화를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의 노래를 연주하고 부르는 등의 활동들이 학생들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PLANETS입니다. 저의 파트너 학교는 상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대 고등학교로 같은 급 학교로 매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APTE와는 같으면서도 다른 활동이었습니다. 우리의 PLANETS 활동은 "성 평등과 환경 문제와 보호"라는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상문고등학교의 리드티처인 소원 선생님은 ppt와 워크시트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팀별로 연구한 사회의 양성평등과 깨끗한 도시를 꾸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내용을 차례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쓰레기를 적절하게 분리하는 방법을 비디오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페트렛(Petlet) 링크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친구를 사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교훈을 공유하고, 성평등을 위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페트렛과 이메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활동 과정, 사진과 비디오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용한 교수자료이자, 다음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모델로 사용되고자 페트렛 링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류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우리는 모든 수업의 보람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모든 사진과 비디오는 APCEIU의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여 각 자료의 주제와 함께 페트렛 링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리는 매년 학교 환경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 성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짧은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이 날은 학교의 위생과 청결을 증진하기 위한 날입니다. 저는 매년 이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싶습니다. 서하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만들어 낸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환경이 신선하고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는 교정에 나무를 심는 봉사 프로젝트를 만들어 학생들이 사랑을 나누고,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물론 난관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모든 활동 과정에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개선할 부분을 꼽자면, 저는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주관의 교육과정에 GCED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아직 깊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모든 프로젝트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숙련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행동을 하고, 왜 효율적이지 못했는지를 돌이켜보며 여러 실수를 통해 배울 뿐입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GCED와 관련된 수업 계획, 수업 활동,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관련 지식을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난관입니다. 저희는 무기직이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뚜렷한 조건을 갖추기란 아직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학교에서 긴 근무를 한 뒤에도 집에 가서 더 일을 하는 교사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다면,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전 교사와 학생들이 GCED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제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캄보디아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난관으로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와 의사소통, 이것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할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는 그들에게 진입 장벽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 학교, 교육부, APCEIU에게, 저는 제 관점에서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저의 후속 활동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발표는 끝나가고,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이 콘퍼런스도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여기가 아님을,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먼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APCEIU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여할 교사들, 특히 APTE 기참가자들이 GCED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다른 교사와 학생들, 그들의 모교와 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지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학교에서 GCED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곧 이들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지란 캄보디아의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GCED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격려가 중요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의 미래 계획은 학교 간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를 만들고 교사와 학생들의 GCED 역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후속 활동의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지역 및 세계 지식에 정통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지역 및 세계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Frewendi, 인도네시아 State Vocational High School 2 Sibolga SMK N 2 Sibolga

안녕하세요. 저는 Frewendi라고 합니다. 저는 32살이고, 북수마트라에 있는 State Vocational High School 2 Sibolga에서 진로상담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월평초등학교에 파견이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사진 오른쪽에 수마트라가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보급과 전파를 위해서 저는 이러한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도네시아 교육교류에 참여한 동료 선생님들에게 제 개인 기관인 HARVEST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하고 온라인 교육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CED관련된 주제들로는 인도네시아 학교와 해외 학교의 수업안 비교 및 이해하기, 한국과 호주의 교육에 대한 사회화, 한국과 호주의 수업안 알아보고 인도네시아 학교에 적용하기, GCED로 연결된 시민, 세계시민교육 개발 소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학의 교수들, 여러 지역과 국가의 교사들과 강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교육문화부 공무원들도 초대하여 여러 웨비나에 참여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GCED와 관련된 웨비나도 있었고 또 다른 주제의 웨비나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활동들은 제가 시작한 모금 활동 사진입니다. 제가 하는 교육 중 재난복구 교육의 일환으로 Kalimantan와 Sulawesi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 4,000만 루피아가 기부되었습니다. 한국돈으로는 300만원이 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재난복구 교육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 사는 친구들을 통해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봉사자가 파견되었고 적극적인 교사들은 기부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온라인으로 준비한 DVD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다양한 교사와 강사가 함께 한 모금 활동입니다. Giving Back이라는 프로그램은 저의 개인 기관인 HARVEST를 통해서 지역 사회 내의 3-5명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용돈, 무료 수업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세계시민교육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APCEIU에서 제공한 책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로상담교사이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로 그룹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과 직결된 공감, 배려, 인식, 존중, 책임감, 활발함, 인간성 등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개별 상담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Guru Penggerak 후보에 합격을 했습니다. Guru Penggerak은 인도네시아의 교육문화부에서 주최하는 인도네시아 교사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고 “리더 교사”라는 뜻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영감을 주는 교사들 위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Guru Penggerak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교장 선생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항상 학교 교육과정에 GCED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석사 수준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기여하거나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와 함께 웨비나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지속가능한 세상, 지속가능한 수업!

김선경, 한국 용북중학교

안녕하세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세계 각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교육원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용북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김선경입니다. 2022년 쌤 콘퍼런스에 초대해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지속가능한 세상, 지속가능한 수업”이라는 주제로 후속교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저의 2018년 베트남 교사교류사업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후속교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후반부는 2022년 플래닛츠PLANETS 대상학교인 필리핀 티모테오 패즈Timoteo Paez 통합학교와의 교류활동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다문화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부이띠수언BuiThiXuan 고등학교에서 3개월간 파견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변화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구분합니다. 저는 제 교사로서의 삶이 2018년 파견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파견의 3개월이란 짧은 시간은 교사로서 저의 생각, 가치관, 삶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2018년 파견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제 전공 교과수업에만 생각과 삶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파견 이후 다른 나라의 교육과 학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면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저의 시야가 확장되어 나갔고 교육의 주제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깨달음은, 이후 제 교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꾸준히 sns를 통해 베트남학교 학생들, 선생님들과 교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도교육청 다문화연구회 회원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고, 제가 소속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소속 문화감수성이해교육 강사로 도내 초중고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강의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베트남 학교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학교를 떠나오며,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너희가 졸업하기 전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전세계를 강타하며, 저는 미리 예매해 둔 호치민행 비행기티켓을 눈물을 머금고 환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내며, 저의 모든 교육활동도 위축되어 있던 2021년, 아태교육원으로부터 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아태지역의 몇 나라에 세계시민교육 수업영상을 보내는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이긴 해도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있는 선생님들과 다시 교류하게 되고, 라-몽-인-캠에 보낼 세계시민교육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면서, 2018년 파견교사를 준비하였던 비슷한 설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 9월에 있었던 네트워킹 데이 또한 저에게 큰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2022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온라인 후속교류 지원사업인, 플라넛츠 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휴직 중이라 플라넛츠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친분이 있는 익산어양중학교 선생님께서 관심을 보이셨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교사' 라는 팀을 이뤄 두 달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학교 이후, 두 번째 교류하게 된 대상국가와 학교는 바로,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Timoteo Paez Integrated School입니다. 그리고 저와 약 두 달 동안 수업을 교류하신 선생님은 과학을 가르치시는 멜란드로 선생님과 존 패트릭 선생님이십니다.

두 과학 선생님들과 저희는 "PAIR I" 팀으로 환상적인 팀웍을 이뤄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저희는 약 3번의 실시간 지속가능발전 관련 수업, 1번의 비실시간 문화교류 수업, 3번의 실시간 행사, 1번의 비실시간 행사 등 총 8번의 수업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시간 채팅방을 개설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수업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업 이후에 찍은 양국의 학생들 수업 사진과 동영상도 교류하기 위해, 페이스북 홈페이지도 따로 개설하였습니다. 물론 매주 수업자료는 넷츠 "PAIR I" 클래스룸에 성실하게 업로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정말 매주 금요일 수업을 위해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저의 파트너 선생님과 수업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필리핀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셔도, 한국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시뮬레이션하고 미리 점검해야 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어서 10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플라넛츠 활동이 저를 세계시민교육 교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필리핀 선생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주 최선을 다해 수업과 행사를 준비하시는 필리핀 선생님들께 부응하기 위해, 저희 한국교사들 역시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준비하면서, 제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플라넛츠 Pair I팀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멜란드로 선생님, 그리고 존 패트릭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은 최고의 World class 교사입니다. 저희의 플라넛츠 활동을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9월 7일 실시간으로 양국 교류 대상학교와의 만남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각국의 애국가 제창 시간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게 되어 우리 한국학생들이 조금 당황하였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인사말씀은 미리 녹화하여 상영하였고, 양국 선생님들의 인사 소개, 그리고 양국 학생들간의 짧은 환영인사,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까지 구글미츠로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속가능한 세상에서 사는 법”이란 주제로 실시간 포스터 만들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 사진은 필리핀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신 수업 영상으로, 양국 학생들이 수업 전 미리 실험 영상을 찍고,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역시 필리핀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신 “Making Halo-halo” 수업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학생들은, 할로할로의 핵심재료인 코코넛미트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국식 할로할로를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푸드마일을 줄이는 법 : Making bibimbap” 수업으로 저희 한국선생님들이 필리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진행한 수업 장면입니다. 물론 필리핀학생들도 필리핀식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의 공통된 수업주제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이었습니다. 멜란드로 선생님과 존 패트릭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들이시고, 저는 국어과, 저희 파트너이신 이선영선생님은 가정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구상할 때, 양국 선생님들의 전공과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문화교류까지 한 수업 안에 녹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흔적들을 발견하셨다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PLANETS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존경하는 우리 멜란드로 선생님과 존패트릭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귀한 영상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코로나도 우리 교사들의 “지속가능한 수업,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나비효과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말레이시아 Keningau Vocational College

안녕하세요, 행사가 오랜 시간 이어졌는데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막식에 앞서 제가 마지막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APTE 10주년을 기념해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에 제가 했던 사소한 행동이 현재 제가 성취한 것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이고 Keningau Sabah지역의 직업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선생님들을 위해 ICT 모듈을 수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교사 포털이나 학생 포털의 IT 인프라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결정만으로도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나비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결정이든,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201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말레이시아의 교육부에서 올린 광고였습니다. 한국-말레이시아 교육교류프로그램이 있으니 모든 말레이시아 교사의 신청을 환영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자, 이런 거창한 생각까진 없었고, 그냥 좀 색다른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정 덕에 오늘 제가 이 콘퍼런스까지 참여하게 될 거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SSAEM 콘퍼런스에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교사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우수사례 발표,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으로 참여. 그리고 올해는 후속교류 우수사례 발표자로 참가합니다. 오늘은 저의 세 번째 SSAEM 콘퍼런스 참여가 되겠습니다.

Sabah지역은 깊은 내륙에 위치했다는 지리적인 단점도 있고, 학교의 시설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UNESCO APCEIU의 교육교류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2022년 Cambridge Dedicated Teacher Award의 글로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은 올해 상반기 영국의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수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상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2020년에는 미 대사관에서 APTE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보조금 1만1천달러 가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도에 APTE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멘토 선생님이었던 임현빈 선생님께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임현빈 선생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빈 선생님께서는 다수의 국제 프로그램을 조직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요, 제가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과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아마 APTE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지 2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로봇고등학교를 비롯한 서울의 여러 학교들과 함께 저희 학교에 와서 1박2일간의 드론 강좌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저희 학교의 학생들에게 드론을 조립하고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저희에게는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사실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APTE 프로그램이 "이런 거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APTE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이 선정이 되어서 잘 해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그 멘토 역할을 했기에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후 2018년 7월,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7일간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저희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APCEIU 외에도 ALCoB, 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s와 협력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경험을 통해 저의 지식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처럼 호텔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하고, 일상적인 집안일까지 하며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어떻게 일상을 보내는지 경험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호텔이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시설인데 거기서 한국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한국 또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참가자 한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2018년에 참여했던 학생이었고, 지금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사실은 어땠는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하.

2019년은 제가 2개의 주요 국제 프로그램을 조직했기 때문에 가장 바쁜 해였습니다. 하나는 Gaja! Korea 프로그램입니다. 9월에 진행했고, 11월에는 포항에 있는 대동중학교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했던 사진 속 Diana 선생님도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Gaja! Korea는 9월에 저희가 한국에 간 것이었고, 11월에는 대동중학교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학교 홍보대사로 훈련받은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 Gaja! Korea 프로그램은 2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데리고 8일간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서울폴리텍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 및 직업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모두가 너무나 열심히 체험을 했습니다. 현지인과 같이 지하철도 타보고 여러 곳을 돌아다녀서, 나중에 발이 아플 지경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요 관광명소인 경복궁을 방문하고, 감옥 같은 장소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탐험하고, 비빔밥과 떡볶이를 직접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많은 문화 프로그램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2020년, 2021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있었지만, APCEIU가 온라인 APTE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고등학교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 호텔에 체크인 하기에 앞서서 이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Diana 선생님과 함께 갔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교류했기 때문에, 인천공항고등학교의 모두와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인천 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교류 당시 제가 사진에 보이는 다른 선생님 두 분의 활동을 도와드리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참여한 교사로서, 제 교사 일과 온라인 교류활동을 동시에 이어가는 것이 꽤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다 대면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낮 동안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프로그램도 병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점은 2017년 파견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잘 해냈습니다.

이제 2022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저희는 조금 더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PLANETS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에 계신 APCEIU 김민솔 전문관님은 이번 프로그램의 담당자이십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는 다솔초등학교와 황곡초등학교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수원에 있는 학교입니다. 콘퍼런스 이후에 곧 만나 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속 선생님들을 지도했습니다. 국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직화하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선생님들도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발표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대동중학교에서는 올해 이번 달 초에 다시 한 번 방문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하루 정도 하고 코타키나발루를 돌아다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 제가 했던 여러가지 후속 활동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아무 생각없이 스크롤하며 본 것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만일 이랬다면 어떨까”, “만약에..”라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APCEIU가 진행하는 이 APTE 프로그램은 결국 여러분들 모두를 더욱 강해지게 돕고 변화시켰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조금 더 수용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나비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페이스북 공고를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기참가자대담

일 시 | 2022. 11. 24. (목) 16:10~17:25

사 회 | 이승희아나운서

기참가자교사 및 학생리스트 |

번호	이름	소속
1	Rotana Prum	캄보디아 Hun Sen Angsnoul High School
2	Frewendi	인도네시아 State Vocational High School 2 Sibolga
3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말레이시아 Keningau Vocational College
4	Rina A. Angeles	필리핀 San Juan City Academic Senior High School
5	Jinnita Pongjakthanachot	태국 Princess Chulabhorn Science High School Chiang Rai
6	김홍대	한국 강원명진학교
7	유소담 학생	한국 원광보건대학교

캄보디아 교사 Rotana Prum 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Rotana Prum 입니다. 저는 Hun Sen Angsnoul High School의 영어 교사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한국에 파견된 교사입니다. 순천효천고등학교에 왔었고, 또 올해는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시온고등학교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앞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 주셨고, 또 시온고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무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과 경험 공유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Frewendi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인도네시아 교사 Frewendi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State Vocational High School 2 Sibolga에서 온 Frewendi입니다. 32살이고, 저는 2019년도에 한-인도네시아 교사 교류사업에 참여해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Khalifa 선생님입니다.

말레이시아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안녕하세요? 저는 Mohd Al Khaliffa bin Mohd Affnan입니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저를 Khalifa 선생님,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칼리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는 사바에 있는 Keningau Vocational College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서울공업고등학교에 파견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파견 근무를 마쳤고, 이 APTE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훌륭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은 필리핀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Rina 선생님, 오늘 우수사례 발표 1번을 해 주신 선생님인데요.

필리핀 교사 Rina A. Angele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 San Juan City Academic Senior High School에서 온 Rina A. Angeles입니다. 2013년도 저는 내곡초등학교에 파견되었습니다. 9년 전이기 때문에 올해가 10주년이고요, 2022년도 다시 제가 우리 협력 교사들과 함께 대구고등학교와 프로그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오신 Jinnita 선생님?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nachot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Jinnita이고, 저는 Princess Chulabhorn Science High School Chiang Rai에서 왔습니다. 저는 2018년도 기참가자로,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 파견됐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경주고등학교와 APTE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 김홍대 선생님께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사 김홍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몽골 116번 학교에 파견 갔던 강원명진학교에 근무하는 음악 교사 김홍대입니다. 강원명진학교 또한 춘천에 존재하고 있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을 대표해서 유소담 학생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학생 유소담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APTE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 가셨던 상관중학교 김명석 선생님의 제자 유소담입니다. 김명석 선생님의 파견 이후로 저희 학교는 캄보디아에 있는 시소왓 학교와 국제교류를 계속하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7년도에 김명석 선생님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분들 모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있고 전공도 다르고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셨습니다. 예, 이제 직접 경험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소중했던 순간, 가장 최고의 순간, APTE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캄보디아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Rotana 선생님?

캄보디아 교사 Rotana Prum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순천 효천고등학교에서 3개월 동안의 파견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따라서 저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스케줄 굉장히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생들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한가지를 골라보자면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사실 수업은 아니고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갔던 선생님도 여기에 함께 계신데요, 저희는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언어장벽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문화, 현안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졌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어서 이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고, 특히 호천고등학교 학생들을 처음 만난 순간이 특별히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Frewendi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교사 Frewendi 예, 저는 여수에서 큰 축제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가장 큰 코딩 및 로봇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와 같은 코딩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축구 경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회자 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음은 Khalifa 선생님?

말레이시아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마지막 며칠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문을 지나면서, 여기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서울공업고등학교인데, 제가 마치 왕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 인상 깊어서 APTE 프로그램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기참가자들이 쓴 책의 표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측에 판매를 저희가 부탁할까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말입니다. 그만큼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Rin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교사 Rina A. Angeles 네, Rotana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간이 소중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GALA Philippines in Korea’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간 필리핀 전시회와 Pinoy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필리핀의 여러 물품들,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 교류 결과, 각 문화의 물건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여러 게임들도 함께 즐겼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도 초청했고,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교사들도 초청을 해서 일주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웃음도 나누고, 우리의 기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사회자 네, 정말 교사, 학생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innita 선생님?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nachot 사실 수백만 개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한국 교사의 어머니의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교장 선생님께 우리가 '김장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아, 이 김치, 김장이라는 것은 음식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행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은 저희 태국 선생님들을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김치를 크게 뜯어서, 말아서 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한 번에 먹기가 어려웠지만, 맛있다고 하니 여러 번 입에 말아 넣어 주셔서 맛보던 김치가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 네, 김치 공유 뿐만 아니라 함께 만듦으로써 더 많은 것을 공유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홍대 선생님, 기억에 남는 추억 좀 여쭙보겠습니다.

한국 교사 김홍대 예, 저 또한 뭐,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했고, 많은 추억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에도 10월 초에 우리나라 한글날 기념 행사처럼 한국어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노래 부르기, 한국어 말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116번 학교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기억에 납니다. 앞을 못 보는 학생인데, 우리나라 동요를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일반 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경쟁했는데 이렇게 대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두번째,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일을 받았는데, 그 학생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그동안 계속 그냥 시골 게르에서 동물들 키우고 그냥 집에만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리코더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몽골은 예중이나 예고에 진학하지 않으면 음악대를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만 그 학생이 '몽골에서 이렇게 음악대학에 진학을 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한테 처음으로 음악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회자 아, 정말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유소담 학생에게는 질문을, 이렇게 드려 보겠습니다. APTE에 참가했던, 김명석 선생님은 국제 교사교류에 아주 열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학창 시절 김명석 선생님과 만남은 어떤 영향을 우리 소담 학생에게 주었는지?'가 소담 학생에게 질문입니다.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한국 학생 유소담 네. 김명석 선생님의 담당 과목은 과학이셨는데, 김명석 선생님께 배우는 과학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깨 주셨고, 김명석 선생님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제가 발표한 발명의 주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관철을 관찰함으로써,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학문만 알려주기 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함께 사는지,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또,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추억들이 많고, 또 이것을 간직하고 계시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문화적 차이나 언어장벽 등 문제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사님들께, 선생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류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러면 Rotana 선생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교사 Rotana Prum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문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제가 2019년에 한국 오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날씨는 어떤가, 또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교육제도는 어떤가를 사전에 리서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약간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엄격하고, 잘 규제되고, 잘 구조화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현장에 갔을 때 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가르칠 때 어떻게 앉아서 멘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는지, 마 선생님과 조 선생님이 저의 멘토였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활동일까?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까?'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찰을 많이 하기로 했고, 제가 수업을 관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터득했고, 또 유네스코 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업에 임할 때에는 아무래도 통역이 어려웠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문화도 알고, 한국 언어표현도 조금 알고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학생들이 "아~"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아~" 그러면 이해를 했다는 것인데 한국 학생들이 "아~" 해서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기기도 하고 '아~ 이런 게 문화적인 차이였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멘토 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극복하셨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나요?

캄보디아 교사 Rotana Prum '시간이 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 이제 학생들의 리액션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더 관찰을 했고 또 필요하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더 많이 줬습니다. 일단 제가 가르친 것을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를 최대한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라고 하면 '아, 애네가 이해를 못 했구나. 숙제 더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교사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질문하고 학생들을 더 잘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아무런 소리 안 내고 바로 활동을 하는데 좀 아리까리하면 "아~" 이런 리액션을 보입니다.

사회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의사소통을 멘토 교사들과 또 학생들과 교사들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rewendi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교사 Frewendi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언어 문제였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코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는 저의 멘토 교사가 코딩을 가르쳤고, 그것을 또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코딩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코딩이 인간의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언어장벽. 정말 극복하기 어렵죠? 이렇게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Khalif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꼽자면 돈이 많이 없어서 그 당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한 것 빼고,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선생님과 함께 언어장벽이 가장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한국 교사들과 한국 학생들 얼굴 표정에 실망감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뭔가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해할 못 하면 그게 표정에서 드러났는데, 최대한 이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언어를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간단한영어 표현을 써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인기 있는 앱도 사용했었습니다. 네이버 번역 앱을 사용을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똑똑한 사람처럼 말이 잘 번역이 되기도 하는 반면, 종종 완전히 이상한 번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몸짓, 손짓을 사용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다, 그러면 바디 랭귀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했는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또 한국어를 구사하면서도, 또 같은 언어권에 있으면서도 중·고등학생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Rin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교사 Rina A. Angeles 예, 제가 왔을 때가 겨울이었고, 너무 추웠습니다. 추위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질문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어린 학습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린 학습자들로부터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 두 개가 고민거리였습니다. 3개월 동안 이런 몰입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행히 저의 협력 교사가 도와주고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드 스위칭 방식도 사용을 했고, 또 저의 코티처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또는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안 앉아있고 뛰어다니면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선생님들이 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멘토링을 해 주고, 또 코칭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가르쳐봤는데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학생들에서부터도 배웠고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 한마디를 해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최대한 리액션을 많이 하면서 칭찬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번에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또 얻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Jinnit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nachot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저의 개인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시민교육의 개념을 배웠는데 습득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수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함께 온 제 동료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또한 교실 뒤에서 항상 지켜봐주시던 코티처들과도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코티처, 저를 많이 챙겨주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네.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김홍대 선생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한국 교사 김홍대 예, 116번 학교에 저랑 이제 다른 한국 선생님 한 분이 같이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통역은 한 분 밖에 안 계셨고, 수업이 많이 컵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음악 용어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크게 해라.", "작게 해라.", "같이 하자.", "들어 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몽골 말을 공부를 좀 하게 됐고, 제가 또 몽골 말로 수업을 하니 학생들 이 훨씬 더 재미있어하고 아주 흥미로웠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언어장벽을 조금 무너뜨리면 더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경험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견됐던 학교나 나라 혹은 파견을 경험한 시간으로부터 무엇이 가장 그림고 뭐가 가장 생각이 나시나요? Rotana 선생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교사 Rotana Prum 예, 옛날 생각이 계속 납니다. 이 사진은 2019년에 족두봉에서 찍었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순천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렇게 가정식을 맛있게, 우리처럼 먹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동료 교사들이 매일매일 다른 그런 가정식을 먹고 여러 종류의 김치도 맛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고등학교 교사들이 머무는 사택 근처에 살았고,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도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뭐 100%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치안도 좋았고 안전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상당히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질문이 있으면 답을 최대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학생들과 지낸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했습니다. 같이 활동도 하고, 여러 장소도 방문을 했구요. 작년 12월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놀랐습니다. 순천이 시골이어서 제가 안 좋아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내향적이라서, MBTI 'I'라서 제대로 표현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해를 하고 계셨는데 다시 그 동네를 둘러보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지금 눈물이 고이신 것 같은데요, 거의 다 그림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교사, 경관, 순천, 학생들, 음식, 다 그림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Frewendi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교사 Frewendi 학생들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저의 멘토 선생님, 그리고 동료 교사들, 다 보고 싶습니다. 멘토 교사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희 형 같고, 가족 같고, 또 저에게 항상 일요일마다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했고, 또 토요일마다 “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축구를 좋아합니다.

사회자 결국, 예. “사람들이 가장 그림다.”라고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Khalifa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그리우신가요?

말레이시아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추워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 아니어도 마스크 종종 착용하는데 외국인들은 마스크 안쓰지요. 제가 제일 그리운 것은 제가 도시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도심의 북적거림이 가장 그림습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근처인 상도역 인근에서 살았고, 저의 멘토 교사님, 임 선생님이 고시원에 저를 묵게 해 주셨고,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작은 빵집을 지나게 됐습니다. 제가 가사를 기억할 정도로 가수 ‘여자친구(G-friend)’가요를 틀었고요, 아침마다 그 빵집에 들어가서 베이글을 하나씩 사서 그걸 아침 식사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도 탔었는데, 그 북적거림, 부산스러움을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북적거림이 가장 그림습니다.

사회자 네, 굉장히 소소한 것들까지 기억을 하시는게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Rin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교사 Rina A. Angeles 네,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들이 저에게 도전을 했었고, 또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애들이 잘 컸을까? 대학에 갔을까? 왜냐하면 벌써 9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를 기억하는지도 궁금하고,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너무 착하고 친절하신 분이었고 또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림고, 장소가 그림고, 음식이 그리운데, 저의 학생들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저를 아직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언젠가 미래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Jinnit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nachot 네. 이 사진은 제가 급식실에 갔을 때입니다. 급식실에는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의 배려로 태국 선생님들이 먼저 음식을 식판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종종 아침을 거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했던 말이 “밥 많이 주세요.”입니다. 그래서 주격으로 정말 몇 번씩이나 더 퍼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국사람들은 매콤하고 또 시큼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김치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산처럼 수북하게 식판에 김치를 쌓아주셨습니다. 그런 게 너무 그림고 또 식탁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학생들과 교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게 정말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흥대 선생님께 여쭙볼 텐데, 몽골에 계셨으니까 좀 특별한 기억들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사 김흥대 예, 몽골 하면 아름다운 자연이지요. 또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몽골 분들의 아주 대범함과 아량,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또 이 사진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가족 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늘 보고 싶고 그림습니다.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서 그랬던 것처럼 먼저 Rotan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교사 Rotana Prum 이 교류프로그램은 저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GCED라는 개념이 아직 교사들 사이에서 아주 넓게 퍼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은 있거나 우리가 이것을 이미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GCED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이것을 교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의 어떤 사례나, 또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언어를 이제 제가 가르쳤고,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배웠던 것은 세계시민 의식교육, GCED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 전공인 Global Education

Leadership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동기부여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GCED라는 중요한 축을 제가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GCED가 어떤 개념이고, 어떠한 상충적인 교육과 관련된 현안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석사과정을 참여하면서 저의 사고방식, 그리고 커리어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의 어떤 사례나, 또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언어를 이제 제가 가르쳤고,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배웠던 것은 세계시민 의식교육, GCED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 전공인 Global Education Leadership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동기부여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GCED라는 중요한 축을 제가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GCED가 어떤 개념이고, 어떠한 상충적인 교육과 관련된 현안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석사과정을 참여하면서 저의 사고방식, 그리고 커리어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 “교사로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Frewendi 선생님?

인도네시아 교사 Frewendi 예, 저 또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열린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이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애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다음은 Khalifa 선생님?

말레이시아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제가 프로그램을 끝나치고 난 후 말레이시아로 돌아와서 제 친구들, 가족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제가 지금 훨씬 더 빨리 걷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중교통 타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제가 그만큼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다니는 것이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빠르게 걷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빨리 걷다 보니까 지금은 동료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달달한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많이 넣은 커피를 마시곤 하는데, 저는 요즘은 “아메리카노”, 블랙커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설탕 넣지 않은 커피, 훨씬 즐기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마치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빨리빨리 걸으시고. 네, 큰 삶의 큰 변화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Rina 선생님?

필리핀 교사 Rina A. Angeles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역, 또는 국제 콘퍼런스 교류에 제가 더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APTE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콘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제가 얻은 교훈들, 경험을 항상 제가 또 공유할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교사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와 공유를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옹호 활동, 워킹그룹, 워킹그룹, 워킹그룹 등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은 아니지만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Jinnita 선생님?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nachot 사실 제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저는 분리수거에 진심인 분리수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분리수거라는 개념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한국은 정말 분리수거에 진심이더러구요. 저는 집 앞에 언제 쓰레기를 밖에 뒤야할지도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날 밤에 쓰레기를 내놓았는데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런 규칙을 몰랐던 저를 아무도 저를 체포해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사회자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홍대 선생님?

한국 교사 김홍대 교사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가의 활동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행사에 교육에 제가 참여했다는, 글로벌 선생님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외국 여행보다는 다른 시야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 네, 마치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빨리빨리 걸으시고. 네, 큰 삶의 큰 변화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Rina 선생님?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졌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저희가 유소담 학생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선생님의 파견 이후로, 상관중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학교와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캄보디아와의 지속적인 교류, 우리 소담 학생과 상관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한국 학생 유소담 해외에 있는 학교에 직접 나가서 그 나라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같이 수업하는 흔치 않은 기회는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세상을 대하는 마음을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되게 필요한, 중요한 발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의 나이 때에는 그 시기에 이러한 경험을 하면 편견 없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다가 이런 다양한 문화교류를 겪어, 경험하게 되면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의견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교류학교와 했던 가장 인상 깊은 수업이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큰 그림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Rotana 선생님?

캄보디아 교사 Rotana Prum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학년 5반이 멘토 선생님의 반이었는데, 언어장벽을 극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활동을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무엇인지, 그 영향이 무엇인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확대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직접 학생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도 GCED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출신 학생들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좋은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지구온난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아주 좋은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Frewendi 선생님?

인도네시아 교사 Frewendi 제가 월평초등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사실 저를 좀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질문도 많이 했고, 저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문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유사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고 선물도 많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선물들을 제가 봤는데,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버려서 조금 실망했습니다만, 이것이 세종대왕에 제가 비유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의 왕과 또 이러한 물건, 이러한 선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는 이러한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얹혀있는 것인지 깨달으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예, 아주 재미있는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Khalifa 선생님?

말레이시아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2018년도로 돌아가서 서울공업고등학교와 함께 진행한 그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말레이시아 학교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 학교에 호텔도 있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 서울공고 학생들이 저희 Keningau Vocational College 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숙사에서,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국 교사들도 말레이시아 교사들의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목욕도 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생활방식들을 경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특히 좋았던 것은 드론 기술을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가져와서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드론을 조립하고, 또 한국 교사와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함께 비빔밥과 한국 치킨을 만드는 요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Rin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교사 Rina A. Angeles 앞서 제가 “기억나는 행사 중에 갈라 필리핀 주간이 있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 2013년도에 이 빨라롱 피노이(palarong Pinoy)라는 필리핀 게임, 필리핀 놀이 체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런 한 공간에 모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고 또 굉장히 바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에는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게임도 하고 문화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모두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기간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기 때문에 모두가 이러한 놀이, 게임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험이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Jinnita 선생님?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nachot 우리가 시작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픈하우스에서 태국 춤을 공연하는 것이었는데, 학생들 수준이 다 달라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개의 춤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춤추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만들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직접 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시도로서는 우리가 공연을 할 때 태국 학생들, 태국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실제 공연을 해야 됐었습니다. 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태국 옷을 입고서 춤을 성공적으로 댄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수준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학부모들도 참여해서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국 교사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뜻도 전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또 아주 아름다운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김홍대 선생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홍대 선생님께 여쭙보겠습니다.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프로젝트,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국 교사 김홍대 예, 우리나라도 도별로 이렇게 '강원도 예능 실기 대회' 같은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수우바투르 음악 경연 대회'라는 음악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장애인/비장애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실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시는데,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 정말 학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싶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역별로 이렇게 예선을 거쳐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셨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경험한 것처럼 그 성과,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교류사업에 함께 참가했던 학생들과 또 교사들에게 짧게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Rotana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교사 Rotana Prum 이게 마지막 질문이지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던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또 생활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박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고, 조 선생님, 마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훌륭한 멘토 교사셨고, 조율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학교 선생님들과 동네 이웃 주민들 모두 저희를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또 모든 게 괜찮다면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제가 한국에 세 번째 방문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교육부와 캄보디아 교육부, 또 APCEIU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Frewendi 선생님?

인도네시아 교사 Frewendi 네, 학생들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멘토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또 특수 교육 학생들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별도로 마련한 게임, 놀이를 했던 것도 그림고, 한국 음식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도 뵙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장성에 와서 제 소개를 했을 때 제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한국말로 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웃으셨습니다. 다들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셨습니다., 또 제가 일요일마다 갔던 교회도 다시 가고 싶습니다. 저의 멘토 선생님께서 이제 더 종교에 친숙해지도록 교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께 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도네시아 교사 Frewendi 예, 축구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Khalifa 선생님?

말레이시아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예, 인도네시아 선생님은 축구를 좋아하시네요. 제가 좀 오글거리는 멘트는 잘 못 하는 성격이지만, 학생들이 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각자 삶의 여정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서울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학생 중 한 명은 군대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은 계속 진학을 했든, 취업을 했든 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 "말레이시아에 놀러오라"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저녁 사 주세요. 제가 일요일까지 있으니까 저녁 사 주세요. 이거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밥 사 주세요. 그리고 또 저의 멘토 선생님, 그리고 임현빈 선생님, 뒤쪽에 계십니다. 혼자서 웃고 계신데, 저의 절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Rin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교사 Rina A. Angeles 저의 협력 교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이 교사교류프로그램 관련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과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또 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이든 여기서든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Jinnita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국 교사 Jinnita Pongjakthanachot 네, 협력학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전과 경주의 학교들에 감사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직접 뵙고 싶다”라고 하셨다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 부임한 그 학교에서도 계속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우리가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 교사 여러분, 저희 학교에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대 선생님?

한국 교사 김홍대 예. 저는 음악 교사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있듯이 몽골에는 ‘심장이 뜨겁도록 이렇게 그리워한다.’는 하롱 에르겐 로타르멘 노래, 민요가 있습니다. 3절까진 못 하고 1절만 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사 김홍대 - 몽골 민요 가창)

사회자 아~ 여기 현장에 계시는 몽골 선생님들은 비디오를 찍고 계십니다. 이렇게 직접 노래로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노래 공연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우리 유소담 학생에게 물어볼 텐데, 당시에 교류했던 우리 캄보디아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생각이 날 텐데 짧은 메시지 좀 전해 주시죠.

한국 학생 유소담 네. 캄보디아 시소왓 학교에 가서 같이 수업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쉽게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저랑 제 친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해 간 발표를 캄보디아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 주어서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낯선 타지에서 살짝 적응하기 힘들었을 저와 제 친구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좋은 추억이어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경험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대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참가자 대담 주요사진



11 폐회식

수료증 수여 사진



수료증 수여 사진



폐회사

임현묵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참여와 기여에 힘입어 2022년 SSAEM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오늘 회의는 사업 참여 8개국이 함께한 대면 교류와 온라인 교류사업의 성과 그리고 후속 교류 결과 등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패널 토론을 통해 귀중한 의견을 나눠 주신 8개국 교육부 대표 여러분, 올해 우수사례를 발표해 주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후속 교류 우수사례를 발표해 주신 선생님, 사업 참여 이후에 경험을 나눠 주신 선생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모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진 못 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는지 압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태지역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에 중점을 두며 시작한 교사교류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참여 교사와 학생에, 학교에,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혜택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려는 교육자들의 의지가 담긴 이 교류사업은 국경을 넘어 학교와 학교,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을 이어 주는 세계로 향한 창문 구실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교류사업에 참여하신 교육부, 교육청,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류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르지만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교육교류사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회의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준 저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교사교류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힘써주신 사무국, 그리고 통역사 여러분, 또 오늘 진행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신 사회자분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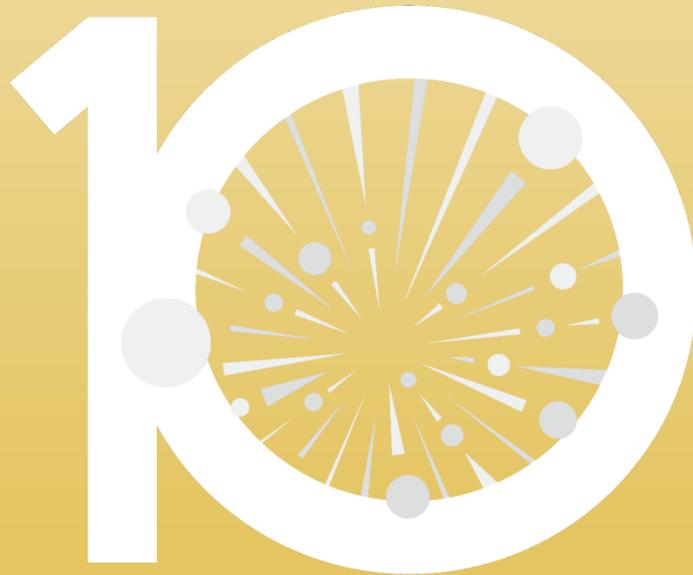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대표님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PTE 10⁺

2022 | SSAEM Conference





APTE | 10TH ANNIVERSARY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